

은평,

2019 은평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결과보고서



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마을하다

은평,

2019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결과보고서

마을하다

은 평 ,
마 을 하 다

마을하다^[마을:하다] :

은평 마을에서는 마을,
학교, 교육 공동체를 통해
무엇이든 가능성을 의미한다.

10

10 은평구청장

12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14 은평 지역사회교육콘텐츠협의회 공동 대표

15

마을, 2019년을 함께하다

20 2019. 은평 교육콘텐츠 현황

28 2020.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안내

31

마을, 학교와 함께하다

마을, 초등학교와 함께하다

33 학교폭력예방뮤지컬 <드림 인 더 스쿨> - U컴파니아(연광초)

35 초등학교 3, 4학년을 위한 지역 알기 프로젝트

‘은평의 보물찾기’ - 교육앤핸즈협동조합(어울초)

37 성장테라피 요가&명상 - 김선주(상신초)

38 은평의 역사적 발자취 - 김연옥(은평초)

39 꿈지락 꿈지락 만들기 세상(토탈공예)

- 꿈지락토탈공예연구회(수색초)

40 ‘아두이노 코딩’ LED 전자회로와 스크래치 - 나비아트스쿨(수리초)

41 흙으로 꿈을 빛다 <도자기공예> - 도예공방 토몽(증산초)

42 신나게 Do! 자존감 Up! with 컵쌓기 - 메타인지센터(구산초)

44 매력적인 직업체험 활동 북 만들기 <매.직.북> - 박덕례(연천초)

45 리더쉽과 협동심을 키우는 행복놀이 - 박수인(신사초)

46 연극아 놀자~! - 변주희(연천초)

47 꿈을 켜는 나무 - 상상목공소협동조합(어울초)

48 즐거운 교과서 체험 음악회 - 서울그라티아오케스트라(연광초)

49 똑딱똑딱 나무로 만들자!(소소한 목공DIY) - 솔공방(은진초)

50 얼~썹! 신명나는 사물놀이 - 송은경(수리초)

- 51** 자연으로 만드는 나만의 소품 만들기 '목공 DIY & 천연제품'
-스프링샤인(구)지노도예학교(충암초)
- 52** 수학으로 춤추는 아이들 - 에듀통합동조합(연신초)
- 53** 바른자세 요가 스트레칭 & 댄스 치어리딩
- 예술꽃 씨앗들의 몸짓(은명초)
- 54** 행복한 브레인 놀이 및 명상 - 오현옥(대은초)
- 56** 꿈을 그린(Green) 드론 - 위드드론 협동조합(연신초)
- 58** 나는야 패션니스타 - 이승연(연광초)
- 59** 正말 情말 좋은 언어순화 프로그램
- 사회적협동조합 인성소통협회(은평초)
- 61** 우리가 자라나는 책놀이, 독서캠프 - 정지연(북한산초)
- 62** 국악-민요교실 - 최동순(연은초)
- 63** 행복이 넘치는 풍선아트 - 최문선(녹번초)
- 64** 동화 뮤지컬 - 최애영(녹번초)
- 65** 리듬 스트레칭&댄스-스페인무용 - 최희성(대조초)
- 66** 댄스퍼포먼스(방송댄스) - 케이탑댄스(구현초)
- 67** 가족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 하늘자전거(갈현초)
- 68** 키가 쑥쑥! 신나는 음악줄넘기 하나, 둘, 셋, 넷 - 황규원(불광초)
-

마을, 중학교와 함께하다

- 70** 요리힐링 - 강정화(루비마로) (연신중)
- 71** 패션디자인&스타일링 - 고은정(증산중)
- 72** IoT창의융합과학교실 - 권효정(구산중)
- 73** 우리 교실 NEWS 라디오 - 김은영은평FM팻케스트(송실중)
- 75** 마칭스쿨(Marching school) - 도음공연(대성중)
- 76** 천문우주교실 - 동원교육(선일여중)
- 77** 글로벌 식탁으로의 초대 - 마을무지개(상신중)
- 78** 숨겨진 영화를 찾아라! 우리동네 영화제 기획자
-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선일여중)
- 80** 마을 숲, 생명과 함께하는 놀이터 - 물푸레생태교육센터(영락중)
- 82** 재미있게 배우는 항공, 드론 조종사 체험 교육
- 바이플러그(주)(불광중)
- 83** 아두이노와 함께하는 스마트메이커 - 서경숙파이소프트(신도중)
- 84** 토털뷰티디자인 -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예일여중)

- 85** 잼스틱과 함께하는 타악기 여행 - 서울심포닉밴드(선일여중)
- 86** 반.세.기.(반전 세계문화 기행) - 송연희(송실중)
- 87** 감성을 담은 글씨, 캘리그래피 배우기 - 예미담(연서중)
- 88** 꿈꾸는 카메라: 사진으로 배우는 인문학적 감수성 - 이명훈(송실중)
- 89** 생각나라 보드놀이터 - 이민아(충암중)
- 90** 두드려라~! 그러면 마음이 열릴 것이다.(난타)
- 조윤정마을공동체 제(연천중)
- 91** 나는야 에코맘 녹색생활실천가 - 지구지킴이에코맘(선일여중)
- 92** 실생활의 소재를 이용해 스크래치로 놀아보기 - 최지영(예일여중)
- 93** 진로탐험대-기업가정신(미니컴퍼니창업대전)
- 케이로드넉버원(구산중)
- 94** '같이'의 가치를 위한 예술 공감 프로그램 "비보이와 함께하는 춤 여행"
- 크로스웨이브기획(대성중)
- 95** '캘리그래피' 먹과의 만남 아름다운 서체
- 한국나비아트스쿨문화원(신도중)
- 96** 수어는 내 친구 -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은평구지회(덕산중)
- 97** 스토리텔링 도예 - 한국콘텐츠통합교육협회(은평중)
- 99** 너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줘 행복한 비폭력 학교 만들기 : 한울타리
- 한국평생교육상담협회(진관중)
- 100** 체험위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의와 은평 청소년 미디어 축제
- 협동조합 청청(불광중)

마을, **고등학교와 함께하다**

- 102** 교과서에 소개된 세계 속의 우리음악!! 타악그룹 공명의 흥겨운 악기여행
- 공명(예일디자인고)
- 103** 뮤지컬배우와 함께하는 유쾌한 뮤지컬 - 공연기획ASK(예일여고)
- 104** 기초부터 배우는 엔트리 코딩스쿨 - 김운월(선정고)
- 105** 내추럴 감성을 키우는 소품공예
- 김은영수다쟁이 손가락(동명여자정보산업고)
- 106** 나도 이제 셰프다. 예! 셰프 - 나래아트앤빈(신도고)
- 107** 건강한 피부를 위한 아로마테라피
- 내추럴 힐링 아로마(신진과학기술고)
- 109** 전통과 코딩, 보드로 만나다 - 노는엄마협동조합(선정고)
- 110** 예쁜얼굴 가꾸기와 나에게 맞는 기초화장품 만들기
- 로하스협동조합(선정국제관광고)

- 111**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융합정보 이해와 체험 - 메타인자센터(대성고)
- 112** 진로를 선택하는 다섯 가지 질문, 콘서트<5Questions, 진로와 인문학>
- 문예콘서트(동명여자정보산업고)
- 113** 바리에테 찾아가는 쇼콰이어 뮤지컬 스쿨
- 바리에테 창의체험단(하나고)
- 114** 토탈공예 - 박상희(신도고)
- 115**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잡학역사(알쓸신잡) - 박은영(선정고)
- 117** 행복한 연극교실 - 수이앤앤(선정고)
- 118** 3D프린팅을 이용한 제품 만들기 - 신윤경(선일이비즈니스고)
- 119**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이크 만들기 - 아미드뽕(은평메디텍고)
- 120** EM친환경 핸드메이드 교실 - 예코맘협동조합(세명컴퓨터고)
- 121**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소품만들기 - 예린공방(은평메디텍고)
- 122** 코딩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 오상희(선일여고)
- 123** 상상 머리 인성, 예절교육 - 유진문화센터(선정국제관광고)
- 124** 감동드림시네마, 삶과 진로를 배우다 - 이경숙(충암고)
- 125** 청소년 집단 미술치료 - 이영미(동명여자정보산업고)
- 127** 아두이노 개발자 메이커 되다. - 이홍준(대성고)
- 128** 긍정적인 또래 관계 문화를 만드는 우리는 친(한)친(구)사이
- 인공감심리상담센터(동명여고)
- 129** 아트앤가드닝-집중력향상을 위한 식물놀이 - 인울그린(진관고)
- 130** '와글와글 그림책 공작소'(그림책+활동+만들기)
- 즐거운교육연구소협동조합(송실고)
- 132** 커피바리스타 다양한 직업 기술 체험 과정 - 카페원코퍼레이션(은평고)
- 133** 심폐소생술 "생명을 살리는 손" - 한국재난안전연구소(세명컴퓨터고)
- 134** 한지공예품 만들기 - 한양문화예술협회, 예지원(신진과학기술고)
- 135** 나만의 천연공예품 만들기 - 함께하는여성협동조합(진관고)
- 137** 체스부 - 허정훈(동명여자정보산업고)
- 138** 미래직업 잡(JOB)지:「창직(Job creation)」- 홍화선(선일이비즈니스고)
- 139** 건축직업체험 "학교로 찾아가는 건설현장 : 건축챌린지"
- 힐링캠프(송실고)

응원합니다

은평구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발굴해 학교에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이 2012년 시작된 이래 어느덧 9년이 흘렀습니다.

교육콘텐츠연계사업 안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을 접함으로써 생각의 틀을 깨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을 강사들은 각자 가지고 있던 잠재력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펼쳐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을교육자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이 학교나 가정이 오롯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구현에 한발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평의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민관학 협력의 우수사례로써 인정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들은 은평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은평을 찾고 있으며, 은평의 마을강사들은 어느덧 전문강사로 성장하여 타 자치구들에게까지 영역을 넓혀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사 및 마을강사 연구모임 활성화, 마을강사 역량강화교육 주제의 다양화, 학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시도를 통해 한층 더 나은 내일의 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마을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 발
전하는 역사회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설레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은평구청장 김미경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콘텐츠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샘들, 교육콘텐츠를 통해 마을을 만나고 계시는 학교샘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콘텐츠 연계 사업 활동내용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2019년 교육콘텐츠는 예술, 진로, 체험, 심리정서, 인성, 놀이 등 226개로 66개의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을 만났습니다. 2012년 89개였던 교육콘텐츠는 226개가 되어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 중, 고 모든 학교에서 함께했습니다.

학생분들은 어땠나요? 다양한 마을강사를 학교에서 만나니 새롭고 재미있었나요? 마을을 좀 더 알게 되었나요?

교사분들은 어떠셨나요?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루고 마을연계를 통해 교육 효과가 상승하던가요? 마을에 대한 신뢰가 생기셨나요?

마을강사분들은 어떠셨나요? 학교와의 지속적인 관계 기반이 마련되고 아동·청소년을 만나면서 교육적 책임감이 커지셨나요?

2012년, 교육콘텐츠사업은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발굴·개발하여 학교에 연계·보급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학교를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세우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출이 지역에서 순환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교육역량 강화에 기여 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콘텐츠를 모집하고 학교와 연계하고 학교 행정의 경감, 마을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박람회 개최 등 8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육콘텐츠연계사업으로 마을과 학교가 다양하게 연계되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토대가 되었으며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창의체험, 자유학년제, 전환기 등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마을강사들이 마을 곳곳에서 교육 주체로 활동하며 건강한 마을교육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2020년에는 기관의 전문성과 학교의 필요성을 연결짓기 위해 1단체 1프로그램으로 교육콘텐츠를 모집하였고 문화예술체육, 진로체험, 장의과학융합, 인성심리정서, 마을탐방 5개영역 164개의 프로그램이 참여합니다. 300여명 마을강사들이 아동·청소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육 환경을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마을과 학교가 더욱 긴밀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이제 민·관·학 거버넌스가 안정화되면서 혁신교육지구사업뿐만아니라 교육콘텐츠연계 사업도 마을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마을-학교의 연구 활동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면서 8년 차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도모의 발걸음에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혁신은 이전의 임무를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에서 재표현하고
재영역화하는 과정이다(브라이언 아서)」

마을방과후지원센터 이미경

함께합니다

‘은평 지역사회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은평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콘텐츠 프로그램을 발굴해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164개 기관, 218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 “행복한 학교를 위한 은평의 실험”으로 시작된 은평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사업은 2013년 초·중·고 대상 “마을 속 학교”를 거쳐 2014년부터 유·초·중·고 대상 “마을 속 즐거운 학교”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9년 차에 접어든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마을 속 즐거운 학교”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모범적인 마을 교육공동체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은평 지역사회교육콘텐츠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접하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은평 지역사회교육콘텐츠협의회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교육의 변화를 이루고 “내”가 아닌 “우리”라는 마을 교육공동체로 거듭나려 합니다.

또한,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고 배움의 주체인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활동하는 “마을 속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평 지역사회교육콘텐츠협의회 공동대표

마을, 2019년을 함께하다

교육콘텐츠연계사업 설명회



마을강사지원(기본교육, 심화교육)



모니터링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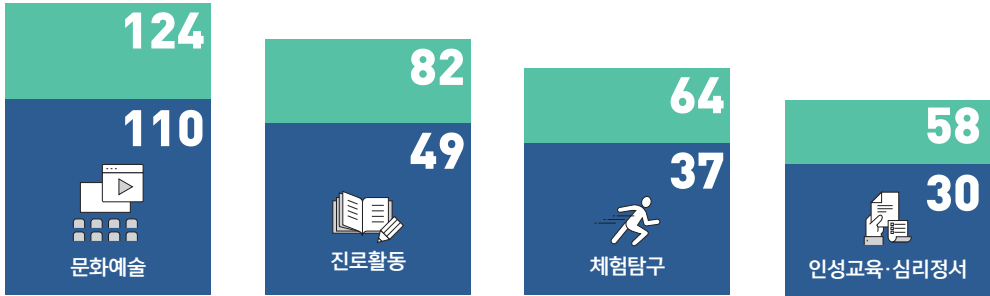


1. 2019.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현황

1) 2019년 현황

19년도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참여 및 연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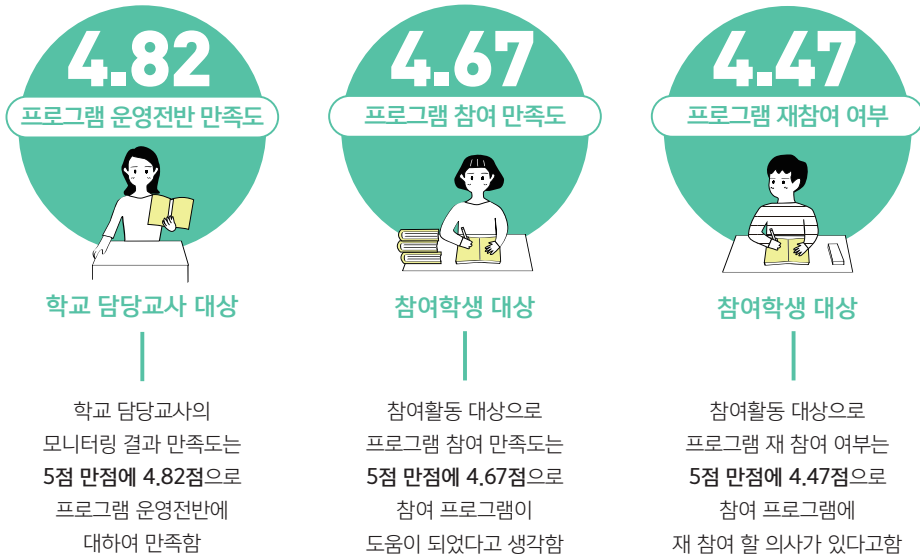
2019년



■ 참여 ■ 연계

*총 프로그램 수 : **328개** *연계 프로그램 수 : **226개**

18년도 학교 만족도조사 결과



2) 사업설명회

1차 사업설명회

- ▶ 행사명 : 2019.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운영 설명회
- ▶ 일시 : 2019년 3월 18일(월) 16:00~18:00
- ▶ 장소 : 롯데몰 은평점 지하 1층 교육장
- ▶ 대상 : 학교에 연계된 교육콘텐츠연계사업 단체(개인)강사 53명(단체 34명, 개인 19명)
- ▶ 진행내용
 - 18년도 교육콘텐츠 현황 보고
 - 19년도 운영절차 설명안내(PPT자료) 및 질의응답

2차 사업설명회

- ▶ 행사명 : 2020년도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설명회
- ▶ 일시 : 2019년 9월 30일(월) 10:30~12:00
- ▶ 장소 : 은평구청 본관 7층 대회의실
- ▶ 대상 :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참여 희망자
- ▶ 진행내용
 -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진행 경과 및 2020년도 추진 방향 안내
 -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2020년도 공고 모집요강 안내

3차 사업설명회

- ▶ 행사명 : 2020. 은평혁신교육지구 교육콘텐츠사업설명회
- ▶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14:30~16:00
- ▶ 장소 :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다목적홀
- ▶ 대상 : 은평구 초, 중, 고등학교 교사
- ▶ 진행내용
 - 은평구청 혁신교육사업 소개 신청절차 안내 및 교육콘텐츠 사업 설명
 - 2020. 마을교육자원 안내 USB자료(목차집 포함) 학교 배부

3) 마을강사지원(기본교육, 심화교육)

기본교육

- ▶ 사업명 : 2019. 교육콘텐츠연계사업 단체(개인)의 기본(필수)교육
- ▶ 기간 : 2019년 4월 22일(월)~29(월), 총 3일간
- ▶ 장소 : 롯데몰 은평점 지하 1층 교육장
- ▶ 대상 : 학교에 연계된 교육콘텐츠연계사업 단체(개인) 대표 및 소속 강사 약 300여명
- ▶ 세부 내용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	일시	4/22(월)	4/26(금)	4/29(월)
	시간	10:30~12:30		
	소속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명	김은주		
	참석인원	78	48	64
학교 안전 교육	일시	4/22(월)	4/26(금)	4/29(월)
	시간	13:20~16:20		
	소속	한국 아동청소년 안전교육협회		
	강사명	김지현	정경아	임재형
	참석인원	68	55	49

▶ 만족도 점수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설문항목	만족도 점수*
전반적인 교육 진행에 만족한다.	4
교육 내용은 주제와 적합하였다.	4.1
교육 내용을 통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4
교육 내용을 통해 아동성폭력 문제 징후의 발견과 대처법을 학습하게 되었다.	3.9
교육 내용이 교육 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욕구를 충족시켰다.	3.8
강사는 성실히 강의를 진행하였다.	4.4
총점	4.03

·학교안전교육

설문항목	만족도 점수*
전반적인 교육 진행에 만족한다.	4.6
교육 내용은 주제와 적합하였다.	4.6
교육 내용을 통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4.5
교육 내용을 통해 아동성폭력 문제 징후의 발견과 대처법을 학습하게 되었다.	4.6
교육 내용이 교육 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욕구를 충족시켰다.	4.5
강사는 성실히 강의를 진행하였다.	4.7
총점	4.58

* 5점 만점(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심화교육

- ▶ 사업명 : 2019. 교육콘텐츠연계사업 마을강사 심화교육
- ▶ 기간 : 2019년 8월 13일(화), 21일(수), 27~30일(화-금), 총 6회
- ▶ 장소 : 은평구평생학습관 공연장,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은평구평생학습관 채움실1,2
- ▶ 대상 : 교육콘텐츠 사업에 공모한 개인 및 단체
- ▶ 세부 내용

세부 행사명	심화교육		
	미래사회와 마을교육공동체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 : 초, 중, 고 대상에 따른 변화하는 아이들	교수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일시	2019년 8월 13일 (화) 11:00-12:30 (1시간 30분)	2019년 8월 21일 (수) 14:00-17:00 (3시간)	2019년 8월 27일~30일 (화-금) 09:30-12:00 (2시간 30분) 13:00-15:30 (2시간 30분)
장소	은평구평생학습관 공연장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즐거운소통)	은평구평생학습관 채움실1,2
대상	교육콘텐츠 참여 마을강사	교육콘텐츠 참여 마을강사	교육콘텐츠 사업에 공모한 개인 및 단체
소속 및 강사명	은평구청정책기획실 채희태	김동찬(구산초),고경심(연천초), 김민(대성중),홍정희(영락중), 김창수(신도고), 조성빈(충암고)	상명대 이현우, 김효선
참석인원	26	29	114

▶ 만족도 점수

·미래사회와 마을교육공동체

설문항목	만족도 점수*
전반적인 교육 진행에 만족한다.	4.6
교육 내용은 주제와 적합하였다.	4.6
교육 내용을 통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4.4
교육 내용을 통해 아동성폭력 문제 징후의 발견과 대처법을 학습하게 되었다.	4.6
교육 내용이 교육 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욕구를 충족시켰다.	4.5
강사는 성실히 강의를 진행하였다.	4.8
총점	4.58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

설문항목	만족도 점수*
전반적인 교육 진행에 만족한다.	4.4
교육 내용은 주제와 적합하였다.	4.5
교육 내용을 통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4.4
교육 내용을 통해 아동성폭력 문제 징후의 발견과 대처법을 학습하게 되었다.	4.4
교육 내용이 교육 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욕구를 충족시켰다.	4.3
강사는 성실히 강의를 진행하였다.	4.6
총점	4.43

·교수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1-2강)

설문항목	만족도 점수*
전반적인 교육 진행에 만족한다.	4.8
교육 내용은 주제와 적합하였다.	4.8
교육 내용을 통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4.7
교육 내용을 통해 아동성폭력 문제 징후의 발견과 대처법을 학습하게 되었다.	4.8
교육 내용이 교육 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욕구를 충족시켰다.	4.7
강사는 성실히 강의를 진행하였다.	4.9
총점	4.78

·교수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3-4강)

설문항목	만족도 점수*
전반적인 교육 진행에 만족한다.	4.6
교육 내용은 주제와 적합하였다.	4.7
교육 내용을 통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4.7
교육 내용을 통해 아동성폭력 문제 징후의 발견과 대처법을 학습하게 되었다.	4.7
교육 내용이 교육 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욕구를 충족시켰다.	4.7
강사는 성실히 강의를 진행하였다.	4.7
총점	4.68

* 5점 만점(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4) 교육자원 박람회

- ▶ 행사명 : 2020. 은평교육자원박람회
- ▶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13:00~18:00
- ▶ 장소 :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공유동, 연결동
- ▶ 참여자
 - 20년도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하는 72개의 단체 및 개인 190여명
 - 68개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사 94명
 - 은평구청, 서부교육지원청, 방과후지원센터 등 담당자 16명
 - 교육콘텐츠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50여명 등 총 350여명
- ▶ 영역별 참여 단체
 - 문화예술체육(총 26개, 전시형 14개 / 체험형 12개)
 - 인성심리정서(총 11개, 전시형 4개 / 체험형 7개)
 - 진로체험활동(총 21개, 전시형 10개 / 체험형 11개)
 - 창의과학융합(총 14개, 전시형 4개 / 체험형 10개)
- ▶ 주관·주최 :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은평구청, 서부교육지원청
 후원 : 서울혁신파크/서울혁신센터

5) 교육콘텐츠 모니터링

- ▶ 사업명 : 2019.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모니터링
- ▶ 모니터링단 : 방과후코디네이터 4명, 교육콘텐츠 협의회 실행위원 5명, 학부모 11명, 일반 참가자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
- ▶ 기간 : 2019년 6월-2019년 12월
- ▶ 장소 : 은평구 내 초 15개교, 중 10개교, 고 11개교 등 총 36개교 및 프로그램 진행 가능한 단체 교육장(2곳)
- ▶ 세부 진행 사항

일정	진행내용	
6.12(수)	1차 회의	1. 모니터링단 운영 방향 논의 2. 모니터링지 점검 및 보완
8.23(금)	2차 회의	1. 1기 모니터링 진행 결과 공유 2. 모니터링 활동시 불편 및 개선사항 공유
6-12월	모니터링 총 64개 (총 119개, 54%/100%)	- 1기(6-8월까지) : 29개 - 2기(9-12월까지) : 35개 - 초등 : 15개 / 중등 : 10개 / 고등 : 11개 문화예술체육 : 31개(50개), 진로활동 17개(27개), 체험탐구 12개(23개), 심리정서인성 : 4개(19개)
12.12(목)	3차 회의	1. 2019년도 모니터링 사업평가(실적보고 및 의견수렴)

▶ 모니터링 결과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시간을 배정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장소를 배정하였다.

적정 인원수의 학생을 참여시켰다.

프로그램 시작 전 강사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교사의 역할이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과 안전지도에 교사가 함께 참여하였다.



시간을 잘 지켜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었다.

프로그램 자료와 준비물이 충분히 준비되었다.

시작 전에 프로그램 내용과 유의사항이 안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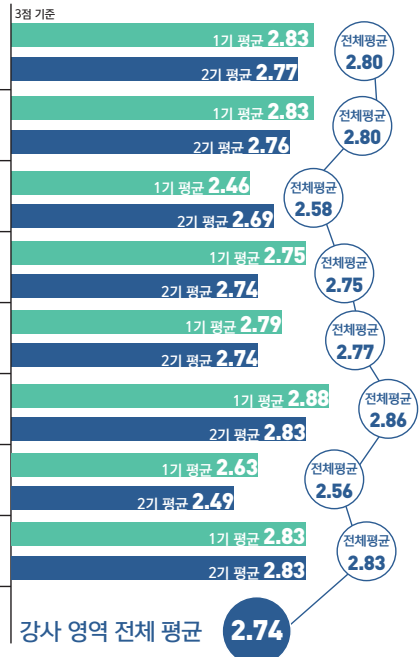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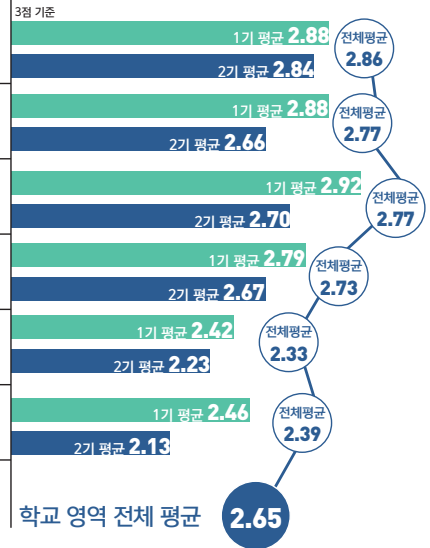
참여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이 진행되었다.

강사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학생 안전에 유의하여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여 활동내용을 상기시켰다.

프로그램에 사용된 물품, 공간을 정돈하였다.



2. 2020.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안내

사업목적

지역의 우수한 마을교육자원을 발굴·개발하여 학교에 연계·보급함으로써 관내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마을과 학교가 함께 지원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0.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 ▶ 사업기간 : 2020 3. 2. ~ 12. 31.(2021. 2. 28.)
- ▶ 지원대상 : 관내 초·중등·특수학교 67개교 및 유치원
- ▶ 운영방법
 - ① 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선정
 - ② 학교 신청을 통해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연계
 - ③ 선택한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후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준

구분	내용
사업분야	2020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분야에 제한 없이 선택 가능 (교과과정연계, 방과 후 수업, 동아리, 자유학기(년)제, 전환기 등)
수업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30분 / 초등학교 40분 / 중학교 45분 / 고등학교 50분 ◦ 동일 학생 대상 1회기 최대 2교시 수업 가능 (단, 부득이하게 3교시 이상 연속 수업할 경우 사전 협의 필요)
강사비	[201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울시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강 사 : 1교시당 40,000원 ◦ 보조강사 : 1교시당 20,000원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는 전체 예산의 60%까지 편성 가능 ◦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재료비 인정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은 단체(개인) 자부담으로 구입 ◦ 시설개보수 비용 등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물품구입비는 예산에 포함될 수 없음 ◦ 간식비 지원 불가

사업 추진일정

9.30	10.1~10.25(18시)	11.20
사업설명회	공모 접수	최종접수 계획서 발표
11.18~11.29	12.18	19년 12월~20년 2월
최종 선정된 계획서 자료집제작(USB)	USB 자료집 배포 및 학교 대상 사업 설명회	학교 신청 접수
20년 3월	20년 3~12월	
학교 연계 단체(개인) 계약체결	사업 실시 · 강사교육 만족도조사 · 모니터링	

*사업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필수프로그램 총 164개 최종 선정

사업영역	프로그램 갯수
문화예술체육	80
진로체험활동	33
창의과학융합	26
인성심리정서	23
마을탐방	2
선정 단체 및 개인강사 현황	
단체	80
개인	84

마을, 학교와 함께하다

마을,
,

초등학교와

함께하다

1

학교폭력예방뮤지컬 <드림 인 더 스쿨>

U컴파니아(연광초)



모든 도시의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하여 기획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드림인더스쿨’.

한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공연을 보러 가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공연으로 기획하였고 뮤지컬공연을 직접 보면서 자연스럽게 흥미롭게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되었고 집중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선생님들께서도 명확하고 깔끔한 교육 진행에 대해서 만족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많은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기회와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에서 다양한 수요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그러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지역 내 행사와 교육콘텐츠개발, 지역 관련 문화예술융합 컨설팅 등 계속 은평구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크게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을 해선 안 된다. 나의 사소한 장난이 친구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던 드림인더스쿨. 이 교육공연을 통한 우리의 기대효과는 학생들이 함께하는 서약식을 통해 반성과 다짐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공

연과 직접 참여하는 역할극을 통해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 등 상대방이 되어 서로를 이해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확실하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인식시켜주고 학업에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와 볼거리로 추억을 선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의도와 목표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음에 만족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좋은 매개체가 되는 찾아가는 공연. 앞으로도 은평구 내의 모든 학교가 찾아가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의 범위도 점점 더 커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공연은, 은평구와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교육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지역 내에서 선정업체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함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은평구 지역 내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로 계속 성장하고 싶습니다.



2

초등학교 3, 4학년을 위한 지역 알기 프로젝트 ‘은평의 보물찾기’

교육앰배서더협동조합(어울초)



은평에 새로 지어진 학교 어울초등학교 3학년 수업을 의뢰받았다. 녹번동에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지역을 알려주고 싶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방문했다. 2회 수업인데 1회는 은평의 보물찾기를 천연비누로 은평의 역사 스토리 텔링 1회는 입체 팝업 큐브로 은평의 역사를 알려주는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예산이 없다고 주 강사와 재료비만 하겠다고 하셔서 힘들 것이라고 하였더니 인원이 적으니 담임선생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다. 선생님께 미리 PPT를 보내드리고 학교를 방문하였다. 처음 생긴 학교라 그런지 학교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3학년 강, 산, 들 반 이름도 인상적이었다. 아이들은 18명으로 많지 않은 숫자여서 주 강사 혼자 들어갈까 하다가 혹시나 3학년이라 아직은 서툴지 않을까 해서 보조강사와 함께 수업을 들어갔다. 같이 들어가기를 잘한 거 같다. 숫자가 작아도 일이 많았다. 비누를 녹이고 일일이 나누어주고 몰드에 대한 설명



과 은평의 역사 스토리 텔링을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비누가 굳었을 때 선생님이나 아이들의 탄성이 나왔다. 너무 예쁘다고 해서 흐뭇하였다.

2회차 수업 때 입체 팝업 큐브를 만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서툴러서 보조강사와 같이 들어갔다. 양면 테이프를 자르고 붙이고 조립하는 과정을 조금 어려워했다.

7가지 은평의 역사와 유물 유적을 설명하고 동 유래를 가지고 퀴즈를 하는 시간에 사탕을 들고 가서 맞추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눈이 초롱초롱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큐브를 컨닝하고 난리가 났다. 선생님도 옆에서 가르쳐 주고 아이들도 선생님도 진행하는 우리도 만족하는 수업이었다.

3

성장테라피 요가&명상

김선주(상신초)



3년 전에 요가를 했었던 6학년 친구들을 또다시 보면서 반가운 마음이었고 아이들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6학년이다 보니 한나절 동안 학교공부 하느라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서 등근 어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요가 시간에 열심히 몸도 움직여 보고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사바사나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이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가 끝나고 몸도 마음도 편해졌다고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4

은평의 역사적 발자취

김연옥(은평초)



평소의 탐방코스 때 정해진 코스만 갔는데 이번에 평소에 가기 힘든 문화유적지를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은평의 다양한 역사적인 文化를 探訪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좋았습니다.



5

폼지락 폼지락 만들기 세상 (토탈공예)

폼지락토탈공예연구회(수색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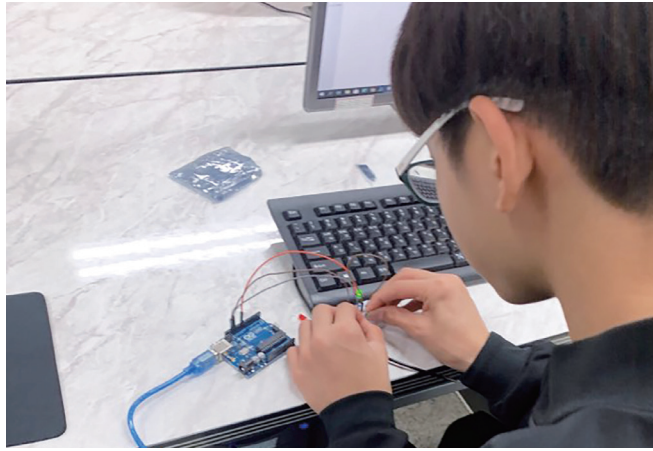
폼지락 토탈공예연구회는 작년부터 시작하여 교육콘텐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색초등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학년 친구들과 교육콘텐츠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도 친절하시고 공예 수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에 아이들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고, 아직 어린 손길이지만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면 선생님께 달려와 “다음 시간에는 뭐 만들어요?”하고 묻는 순진무구한 눈망울의 아이들이 마냥 예쁘고 더 좋은 작품 더 좋아할 만한 작품을 교사로서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수색초등학교에서 수업한 공예작품을 내년에는 아이들과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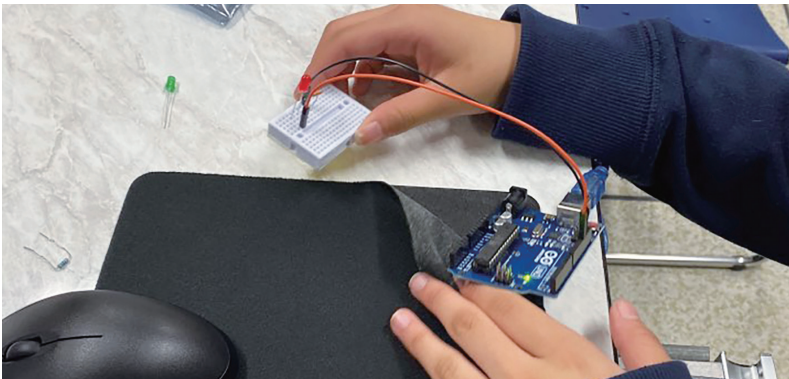
‘아두이노 코딩’ LED 전자회로와 스크래치

나비아트스쿨(수리초)



작년에 참여한 학교에 다시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게임을 만들어 내면서 수업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꼈으며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는 수업에서 설명을 열심히 들어 직접 신호등을 만들어 내는 모습에서 매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어려워하던 아이들도 점점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며 재미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참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7

흙으로 꿈을 빚다 <도자기공예>

도예공방 토몽(증산초)



개인적으로 학교에 수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도 많고 준비할 서류도 많은데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통하여 참여하니 학교에서도 콘텐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강사인 제가 학교수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8

신나게 Do! 자존감 Up! with 컵쌓기

메타인지센터(구산초)



“사랑합니다~!”

정겹게 들리는 교장 선생님의 정문 앞 90도 인사로 시작되는 구산초 방문, 이번 에도 어김없이 교장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며 교실로 향하게 되었다.

내가 졸업한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익숙해진 보안관 선생님, 복도를 지나 만나 게 되는 선생님과 아이들도 친숙하게 느껴진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 아는데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밝고 맑은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준다. 올해 만난 5학년 친구들은 작년보다도 더 시끌벅적한 것 같다.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교실 안에서의 모습도 씩씩하고 자신감이 차 있다.

수업이 진행되어 갈수록 아이들의 “오른손, 왼손” 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깔깔대는 웃음소리도 더욱 커진다.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집중하여 컵을 쌓고 허무는 모습이 기특하고 사랑스럽다. 수업 때도 이렇게 집중을 잘하나요? 하고 물으면 담임선생님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짓는다.



나도 그 뜻을 이해하고 함께 미소를 짓는다. 올해는 수업 일정이 3개월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학교를 자주 방문하게 되어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강사 입장에서 조금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복도에서 알아보고 인사하는 아이들 덕분에 기운이 날 때가 많아졌다. 나름 유행어를 갖춘 유명인사가 된 기분일까? “참, 쉽죠?”, “오른손, 왼손” 등등 수업을 떠올리며 아이들이 인사 대신 먼저 던지는 인사말에 “학교수업도 집중해서 잘 듣고 있지?” 하며 나름대로 격려로 답해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뿌듯함이 느껴진다.

교육콘텐츠를 통해 은평구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교감하고 젊은 새싹들과 강사들이 하나가 되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 자식 키우는 아빠, 엄마의 입장에서 고마운 마음과 수업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는 행운을 선물 받은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게 된다.



9

매력적인 직업체험 활동 북 만들기 <매.직.북>

박덕례(연천초)



연천초등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업을 한 학교이다. 6학년의 경우 지난해에 한차례 수업을 진행하여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하려 노력하였다.

6년 동안 다닌 학교지만, 우리 마을을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직업을 탐색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직업의 가치를 치며 다양한 직업군을 찾았다. 연속으로 진행하여 6학년 친구들의 5학년 모습이 자료로 남아있어 수업에서 보여주는 PPT 화면을 통해 지난 기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하였다. 5학년 학생들은 처음 접하는 수업에 흥미를 느꼈고, 4차 시 수업 동안 진행된 다양한 체험 활동에 즐거워하였다.

특히, 생크림 케이크, 초콜릿 과자 만들기 수업 등, 직접 만들고 먹을 수 있는 수업에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았다. 학교와 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셔서 아이들 수업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어서 수업하는 동안 즐거웠다.



10

리더쉽과 협동심을
키우는 행복놀이

박수인(신사초)



1학년 4학급을 1학기에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 관계, 어른에 대한 예절을 훈련하는 시기이고 이 부분을 뇌 교육수업으로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력도 높고 집중도 잘하고 활동도 잘했습니다. 기본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향을 바꿔서 난도를 높여서 협동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질문하면 감동할만한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음악만 나오면 몸을 흔드는 나이기에 체조 댄스를 많이 하면서 활성화를 시켜줬습니다. 마지막 날 다음에 꼭 와야 한다고 안아주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고 선생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셔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그동안 힘듦이 싹 사라졌습니다. 공교육선생님들의 피, 땀, 눈물의 노고가 대단하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강사가 공교육을 도와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 행복해지는 학교다운 학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11

연극아 놀자~!

변주희(연천초)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하여 연극아 놀자~!

콘텐츠 수업을 연천초등학교 국어 연계 수업으로 총 10회차 수업을 진행하였다. 우리 지역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마다 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뿌듯하다. 이번 수업을 돌이켜 보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극을 접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크고 배움의 욕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혼자가 아닌 같이 활동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배려를 배우고 협동심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내면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할 줄 아는 창의적인 사람에 한발 가까워진 것 같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려운 국어 연극이 아닌 재밌는 연극놀이를 위해 동영상과 천을 활용하여 흥미로워했으며 역할 놀이에 필요한 가면을 만들면서 오감을 만족시켰으며 매 수업 발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수업을 마치며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수업에 참여하고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활동하는 콘텐츠가 더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항상 통통 튀는 생각과 발표에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해 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더욱 노력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12

꿈을 켜는 나무

상상목공소협동조합(어울초)



상상목공소협동조합이 은평구로의 이전 후 첫 마을학교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첫발을 내디디고 만난 어울초등학교 아이들. 어울초등학교는 개교 1년이 채 안 되는 신설학교로 이곳 5학년 아이들 또한 새 학교에 적응하는 아이들이었다. 낯선 곳에서의 낯선 만남.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했을 것이다. 4번의 만남으로 이루어 내야 할 공동작품을 위해 모두의 땀방울이 보태고 보태졌고, 그 정성만큼 가까워진 시간들. ‘한 마을’이 이어준 이번 아이들과의 수업. 선생님과 학생의 만남이 아닌 마을의 어른과 아이들의 만남인 것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한다.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학교가 지역 간 문화예술을 이해하여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더욱 소중한 경험을 쌓고 배울 수 있는 마을 교육공동체사업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었다.



13

즐거운 교과서 체험 음악회

서울그라티아오케스트라(연광초)



쉬운 클래식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음악 및 요즘 유행하는 곡들을 연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다. 또한 학생들과 오케스트라와의 협연하는 경험과 악기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와 악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연주와 음악감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클래식 음악에 더 친밀히 다가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음악인들과 연주자들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14

똑딱똑딱 나무로 만들자! (소소한 목공DIY)

솔공방(은진초)



아이들과의 만남이 좋아 시작한 일인데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확장되는 사업에 참여하여 같이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목공의 특성상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나가는 수업시간이지만 순간순간 아이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수업 전후로 수업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불편함 없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도 처음보다 모든 과정이 수월해졌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점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이 점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15

얼~쑤! 신명나는 사물놀이

송은경(수리초)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차로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수리초 같은 경우는 혁신 초등학교인 관계로 전체적인 반 수도 적고 특히 한 반당 인원이 20명이 되지 않은 터라 다른 학교 대비 적은 인원로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컸습니다. 게다가 어떤 학교보다 악기나 장소도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수업을 시작해보니 혁신학교 특성상 이미 다양한 문예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토요 사물놀이반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수업 수준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정규수업이니 초보 아이들에게 맞추려 했으나 상당 시간 사물놀이를 배워온 아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꽤 지루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초반엔 그 간극을 줄이고 다 같이 합주하도록 지도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네요.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서로 합을 맞추고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고맙고 이뻐했습니다.

16

자연으로 만드는
나만의 소품 만들기
‘목공 DIY & 천연제품’

스프링샤인(구)지노도예학교 (충암초)



은평 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서 연계하기 쉽지 않은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기존 콘텐츠연계사업과 진행을 해 보았지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주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만족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17

수학으로 춤추는 아이들

에듀통합동조합(연신초)



벌써 3년째 연신초등학교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수학의 원리를 배우고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이 아닌 강당에서 수학축제를 진행하였는데 평소 어려웠던 연산이나, 도형, 추리력 등 다양한 영역을 교구를 직접 만져보며 원리를 알고 나니 더 즐거워하였습니다.

동시에 12개의 부스를 돌아다니며 체험하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걸 보며 함께 즐거운 수학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내년에 또 만나요’하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 뿌듯하였습니다.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수학 축제. 저희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은평 교육콘텐츠 및 연신초등학교 담당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 또 만나길 기대합니다.



18

바른자세 요가 스트레칭 & 댄스 치어리딩

예술꽃 씨앗들의 몸짓(은명초)



2학년 소감문

불이 나는 큰일을 겪고 여름 방학이 끝난 후 2학년 수업을 보강하였을 때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름대로 잘 따라주었던 2학년 친구들이 고마웠다. 1학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자라서 와준 친구들이 의젓하게 지나간 작품과 동작을 잊지 않고 따라 해 주어서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1학년 소감문

2학기에 진행을 하여서 인지 의젓한 모습으로 수업을 따라 해 주었다. 요가 스트레칭 시간은 많이 어려웠었지만 치어리딩 시간은 흥겨운 음악에 나오자 모두 배운 동작들을 진행하며 즐거워하였다. 배려하며 움직이는 것들을 처음에는 어려워하였으나 잘 따라 해 주었다. 특히 1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 수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였다



19

행복한 브레인 놀이 및 명상

오현옥(대은초)



2019년 10월 15일 불광역 근처에 있는 대은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5학년 아이들을 만났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그런가! 상당수 아이들 어깨는 좀 움츠려 있었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따로 앉고, 서로 같은 팀원이 되기를 꺼리기도 했다. 처음 몸 상태를 점검하는 데 허리를 구부려서 손이 바닥에 닿지 않는 아이들, 배를 앞으로 하고 허리를 구부리라고 하니 앓는 소리를 내며 금방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한 발로 서 있으라고 하니 비틀비틀……. 정말 요즘 아이들 키만 크고 약골이라고 하더니 딱 그 모양이었다.

첫날 체조를 하고 재미있는 ‘비석 치기 놀이’를 했다. ‘릴레이 비석 치기’ 놀이인데 어찌나 아이들이 집중하고 놀던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다. 그리고 마무리로 앉아서 명상하는데 자꾸만 호흡을 소리 내서 크게 하고 ‘쿵쿵 훌쩍훌쩍’ 이상한 소리를 내는 친구들도 있었다. 명상의 자세를 설명해주고 차분하게 호흡하고 조용히 명상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1회 2회… 점점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은 단전에 에너지도 생기고 몸의 유연성, 지구력, 균형 감각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뇌 통합을 위한 집중박수도 잘 따라 하고, 떠드는 친구들도 점차 줄어들고, 놀이할 때는 집중해서 재미있고, 신나게 놀고, 처음에는 게임에서 지면 친구 탓을 하고 기분 나쁘게 소리를 질러대더니 점점 실수 OK라고 말하며 친구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고, 명상시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가만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해주었다. 특히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집중방법인 ‘손가락끝 집중하기’ 명상은 갈수록 태도가 좋아졌다.



끝나는 날은 너무 아쉽고 더 하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공부 안 하고 노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하는 친구들,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니 더욱 뜻깊었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에 “명상시간에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어 참 좋았다.”라고 쓴 반 아이가 있었다는 선생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다.

아쉽지만 수업은 끝났다. 7번 만남의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기르는 간단한 손 유희를 알려주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체조방법을 알려주고, 신나게 놀고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명상을 체험케 했다. 짧은 만남이지만 자기 몸을 잘 돌보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운동장을 나오면서 대은초등학교 교정을 바라보며, ‘마을 강사가 되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20

꿈을 그린(Green) 드론

위드드론 협동조합(연신초)



작년 9월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공모에 도전하여 당선되고 드디어 첫 수업을 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려 각자 잘하는 일에 집중하여 수업준비를 하기로 했다. 연신초등학교에서 ‘수학,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드론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수업을 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드론 수업의 가장 흔한 유형인 드론 비행체험을 요청하셨다.

드론을 통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드론 과학의 흥미를 유발해주고 다가 오는 4차산업혁명의 지도자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준비에 임했다.

이틀에 걸쳐 2~3반이 동시에 수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드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 다행히 이틀 수업 동안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조용히 질서를 지켜 주었고 담임선생님께서도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다.

드론을 비행해본 학생들이 평균 5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비행은 드론을 고무줄에 묶어서 체험하였고 두 번째 비행에서는 안전한 미니 드론을 이용하여 비행을 해보았다.

드론은 남자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재미있어하지만 실제로 비행을 해보면 여자아이들의 조심성이 오히려 비행을 잘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연신초에서도 역시 여자아이들의 주의 깊음이 비행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수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바람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였다.

첫째, 4차산업혁명의 대표 명사인 드론을 통해 미래의 숨은 인재를 발견하는 것

둘째, 미래사회는 기술 친화적인 융합인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수업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들이 기술 협력적인 인재로 자라는 것

셋째, 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의 전문성과 다양화를 연구하는 것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21

나는야 패셔니스타

이승연(연광초)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하여 연광초등학교에서 패션디자인 콘텐츠 수업으로 동아리 수업 1교시 총 9회차 수업 의뢰가 들어왔다. 학교 담당자 선생님이신 신연수 교육부장님에게 연락이 왔을 때 은평구 내 학교이자 특히 둘째가 다녔던 유치원의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정할 수 있었다.

은평구 내 우리 지역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마다 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감사했다. 다른 지역보다 은평구는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 덕분에 마을 강사들이 은평구 내 학교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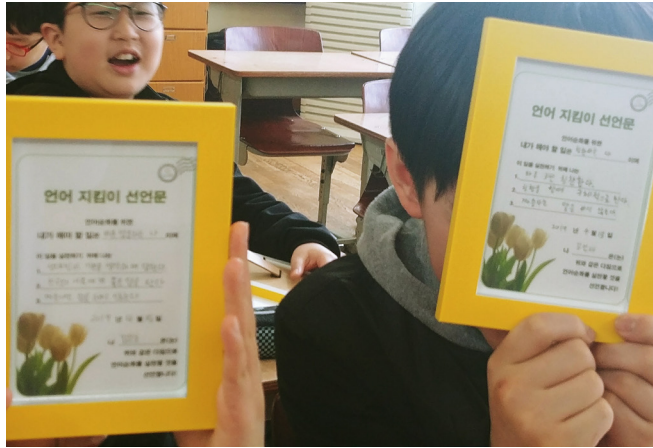
다만, 이런 좋은 사업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진행했으면 한다. 은평구 내에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이자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강사로서 좀 더 많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 내 학교에 적극 홍보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번 동아리 수업을 돌이켜 보면, 학교의 동아리 수업에 연결하여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시간적인 부분은 고려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40분 1시간 수업이 아쉬웠다. 20년 패션디자이너 실무를 하면서 만든 ‘나는야 패셔니스타’는 직업이 무엇인지, 패션디자이너가 무엇인지, 그 과정을 선택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지로 접근하여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보람을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통통 튀며 항상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해 준 연광초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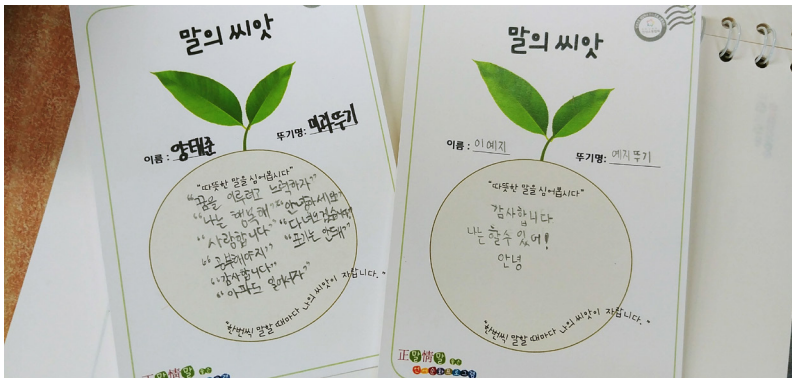
정말 情말 좋은 언어순화 프로그램

사회적협동조합
인성소통협회(은평초)



우민정 6학년 강사

은평 마을방과후지원사업으로 처음 은평구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평 친구들에게 언어란 무엇이고 어떻게 쓰고 있을지를 상상만 하다 직접 친구들을 만나보니 전반적으로 바른말을 쓰고 있는 착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수업 태도 바르고, 항상 웃는 얼굴로 성실함을 보였지요.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바른 언어 지킴이로서 열심히 실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으로 은평초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기회가 많아져 앞으로 친구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나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현 6학년 강사

은평구 마을 학교에는 올해 처음 함께하게 되었는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이들의 활발한 참여로 5회기라는 짧은 수업이었음에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헤어짐의 아쉬움을 표하며 또 만나고 싶다는 아이들처럼 저도 다음번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서정애 5학년 강사

은평 마을방과후지원사업으로 은평 관내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되어 감사했습니다.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이다 보니 프로그램을 보면 가능하면 많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기회를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에는 기회를 얻게 되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은평초등학교는 담당 선생님의 고민으로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담당 선생님의 고민만큼 아이들에게는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는 듯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더욱 많아져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쓰는 언어의 소중함을 함께 공감하고 체험하며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하길 바랍니다.



23

우리가 자라나는 책놀이,
독서캠프

정지연(북한산초)

은평 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선정, 기관과 연계하는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였고, 강사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도 책임 있는 태도로 보여졌다. 또한, 학교 담당자와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사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해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애초의 계획은 6차 시의 장기적인 수업을 계획하였으나, 학교와의 매칭과정에서 1회의 단발적인 독서캠프로 프로그램이 변경되었다. 학교행사 일정과 진행형식이 결정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담당자가 여러 번 교체되고 참여 인원도 변동이 있어서 수업의 주제와 내용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캠프를 진행하면서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에도 이러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 ❶ 학교 자체에 캠프를 진행할 수 있는 방갈로와 취사장 등이 갖춰져서 가족이 1박을 하는 독서캠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가족이 함께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게임도 하고 책도 함께 보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❷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 하는 활동과 제시된 단어들로 가족에 대한 축흥시를 지으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24

국악·민요교실

최동순(연은초)



- ❶ 우리 민요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민요를 대표하는 아리랑을 함께 배우고 부르며, 장구의 구조와 장단을 익히게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많은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참여한 매우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다.
- ❷ 학생들이 국악·민요교실에 흥미를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먼데 소리 배우기, 자진모리장단 배우기, 전라도 민요 중 모찌기를 하면서 부르는 민요를 학생들이 메기고 받으며 불러봄으로써, 우리 국악·민요를 이해하는 매우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다.
- ❸ 담임선생님 참여하에 강강술래 중에서 “남생아 놀아라”를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부르고, 꺾는소리, 떠는소리를 배우고, 개인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국악·민요 발표에 자신감을 심어준 수업이었다.



25

행복이 넘치는 풍선아트

최문선(녹번초)



해마다 교육콘텐츠사업을 참여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융합하고 협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창의적이고 자기에게 잠재되어있는 그 무엇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아이터이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먼저 구상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는 나도 모르게 “정말 잘했어!” 칭찬 릴레이가 이어진다. 자기가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이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볼 때는 늘 기분이 좋다. 언제나 스스로 자아를 길러가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26

동화 뮤지컬

최애영(녹번초)



녹번초 4학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프로그램이라 긴장을 하고 정해진 교실로 이동 시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책상을 밀어주시고 지저분한 교실을 깨끗하게 정돈해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다. 아이들의 활동들을 일일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해 주시며 강사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며 뮤지컬 활동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셨다. 아이들의 안전지도에도 함께 참여해주셨다.

아이들 역시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열심히 대사와 노래를 익히고 무애를 즐겼다. 잘하는 친구는 잘 못하는 친구들을 격려하며 잘 이끌어 주었고 아이들이 인정하는 배우들의 친구들도 있었다. 역할 정할 때 배려하는 모습들과 존중하는 모습들이 있어 늘 재미있고 기다려지는 수업이었다.

5학년 때는 뮤지컬 수업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하나의극을 완성하고는 스스로 뿌듯해하는 친구들이었다.

27

리듬 스트레칭&댄스
-스페인무용

최희성(대조초)

세계문화의 접근성으로 춤을 통하여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자연과 문화를 움직임으로 경험하며 자신감과 여러 나라 문화의 수용성을 키워나가 보고자 하였습니다. 방송 댄스가 대세가 된 요즘 처음 세계무용을 접한 아이들은 다소 낯설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영화음악 OST 파소도블레의 맛있고 진취적인 음악에 맞추어 스페인의 투우경기문화와 스페인의 열정, 집시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알고 느낌을 엿볼 수 있게 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라이언킹 OST로 아프리카의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움직임의 느낌을 담아 보고 아이들의 창의성과 더불어 재미있는 표현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교육적 연계의 의미를 살릴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간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스페인을 여행할 때 지금 이 시간을 떠올리며 세계문화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어울려지기를 바랍니다.



28

댄스퍼포먼스(방송댄스)

케이팝댄스(구현초)



2년 동안 구현초등학교 수업하면서 1학년 저학년 아이들 수업은 처음이라 기대도 걱정도 많았었다. 간단한 몇 가지 동작들로 유행하는 k-pop 음악에 맞추어 출 수 있는 에어 댄스와 동작을 쉽게 변형하여 부담 없이 습득하고 외울 수 있는 방송 댄스를 섞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에어 댄스는 물론이고 외워야 할 동작이 많은 방송 댄스도 잘 따라와 주었다. 안무를 창작하고 변형할 때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발 스텝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단순하되 전신운동이 되는 동작들로 구성하려 노력했다.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매시간 집중하며 수업에 참여해 주었고 주 1회 수업인데 복습도 잘 해오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춤을 처음 접해보는 아이들도 많았을 텐데 조별활동과 발표에 부끄러움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운 날씨에도 땀 흘리며 웃는 얼굴로 춤춰준 아이들이 기특했다.

마지막 수업 날 아쉽다고 말해주는 아이들 2학년이 되어서도 또 춤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29

가족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하늘자전거(갈현초)



본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위해 실제 관람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작품 선정부터 준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과와 연계한 즐겁고 유익한 작품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을 선사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나 어린이들의 감성이 충전되고 무한한 상상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필요한 사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표현력과 사고력, 창의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건전한 인성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자 합니다.

30

키가 쑥쑥!
신나는 음악줄넘기
하나, 둘, 셋, 넷

황규원(불광초)



첫 수업을 시작해서는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줄넘기를 못 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줄넘기를 못 하는 학생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더욱더 훌륭한 강사가 되기를 나 자신에게 약속해본다.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도 방과 후 수업은 계속 연관성 있게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
음
,

중
학
교
와

함
께
하
다

1

요리힐링

강정화^{루비마로} (연신중)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강사가 의도한 대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서 좋았으며, 담당 선생님께서 결원을 매번 다른 학생들로 보충해주셔서 활동 인원의 부족 어려움 없이 즐겁게 음식을 만들어 즐길 수 있었다. 성실한 학생들이 있어서 재료준비 및 뒷정리까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2

패션디자인&스타일링

고은정(증산중)



증산중학교에서 패션디자인&스타일링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수업에 알맞은 미술실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과 즐겁게 디자인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패션디자인에 관심과 재능이 많았기에 8회차 동안 굉장히 몰입하여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작품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패션 디자인의 전개과정을 단계적으로 실습해보는 과정에서 패션이미지맵, 패션일러스트, 미니바디 패션디자인, 무대디자인까지 완성해가며 학생들의 빛나는 열정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었고, 미래의 디자이너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역량들을 펼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후반부에 진행된 '나만의 패션 소품 만들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취향이나 감성들을 자유롭게 표현해보고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어서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패션디자인&스타일링 수업을 총괄 기획하고 강의한 강사로서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설정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창의성과 성취감, 자존감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및 증산중학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

IoT창의융합과학교실

권효정(구산중)



12주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나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가는구나 싶습니다.

처음으로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정산 시스템에 적응해야 했지만 잘 마무리되어 기쁩니다. 학생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설레고 긴장되는 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친구들과의 호흡을 맞춰가니 서로 더없이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의 수업을 끝내니 아이들도 아쉬워하고 ‘2학기엔 함께 뭘 하나요?’라는 질문을 들으며 기분 좋게 수업마무리 하였습니다. 재료비가 워낙 많이 드는 IoT 수업이라 학교 자체에서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사업을 통하여 수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딩과 접목된 IoT(사물인터넷) 창의융합과학교실은 아이들과 만들고 관찰하고 수정하며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흥미와 교육이 함께 하는 교육입니다.

2020년에도 도전하여 친구들과 좋은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4

우리 교실 NEWS 라디오

김은영은평FM팟캐스트 (송실중)



송실중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 2월에 수업 의뢰를 받았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되어서, 2학기 수업이지만 빨리 확정해 놓으려고요.”라고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했다. 무려 6개월 만에 첫 수업을 하게 되었다. 첫날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우리 교실 NEWS 라디오’라는 생소한 수업 제목에 낯설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직 초등학생의 모습을 많이 벗지 않은 것 같은 귀여운 모습이었다.

학교의 요청에 따라 총 7차 시로 진행한 수업이었는데, 팟캐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작할 팟캐스트의 소재를 찾고, 원고를 쓰고, 스피치 트레이닝을 하고, 장비를 직접 다뤄보기도 하는 등 방송 제작을 위한 내용을 하나하나 전달해 나갔다. 이미 유튜브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수업이라 잘 참여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뻑뻑한 일정이었지만, 세 명의 강사가 한 조씩 맡아서 밀착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참여형 수업으로 아이들이 직접 해야 하는 활동이 많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에 관심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며 힘을 냈다.

‘미디어리터러시’라는 미디어를 보고, 또 자신이 직접 만들기도 하는 미디어 시대에 꼭 필요한 소양이라고 생각되어 짧은 수업 기간이었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전달했다. 가짜 뉴스를 구분해내고, 자신이 미디어를 만들 때 갖추어야 할 윤리 의식, 악성 댓글의 위험성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마지막 시간은 모둠별로 준비한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었

다. 진지하게 녹음하고 더 잘하고 싶어서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라디오에 출연했다는 신기함과 뿌듯함을 느끼며 좋아했다.

교육콘텐츠를 제안하고 처음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감을 들으며, 함께 만들어간 우리의 시간이 아이들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고, 앞으로 미디어를 대하는 시각이 한 뼘쯤 성숙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다.

함께해 준 송실중학교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의뢰해주신 선생님과 학교와 만날 기회를 마련해 준 은평 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도 감사드린다.



5

마칭스쿨
(Marching school)

도음공연(대성중)



은평구 지역의 학생들에게 문화, 예술분야의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찾아가는 체험 공연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입시와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 시원하고 강렬한 마칭공연을 선보이며 학생들과 함께 체험 공연을 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인상 깊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아이들에게 이러한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천문우주교실

동원교육(선일여중)



20세기까지 직업으로 열정을 가지고 교육 분야에 입문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나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의 부족함이 교육 사업을 포기하게 만든 것도 부정할 수는 없었다. 10여 년이 흐른 뒤 은평구에서 실시한 교육콘텐츠사업을 접한 후 첫해부터 참가하여 2019년까지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가 잘하고, 하고 싶었던 천문학 분야의 교육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때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하면서 과거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이나 새롭게 바뀐 과학적 진실을 대하며 개인적인 성취감도 무척이나 만족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진행하며 어린 학생들과 부대끼고 좋은 일 힘든 일들을 겪으며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여유와 즐거움을 생각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한다.

내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자료의 업데이트와 새로운 내용들을 더 공부해서 여러 해 동안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더 즐겁고 활기차게 많은 바의 교육에 충실하고자 한다.

별을 바라보는 아이는 생각이 깊어지고

우주를 생각하는 아이는 마음이 넓어진다

우주를 맘속에 담아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

하늘 한 번 쳐다보기 힘든 각박한 현시대에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고 있는 우주. 나의 소박하지만 작지 않은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으면 하는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7

글로벌 식탁으로의 초대

마을무지개(상신중)



이번에 만난 1기 2기 아이들 모두 수업에 집중을 잘 하고 예의가 바른 아이들이었습니다. 내심 중학생들의 특성이 있으려니 하는 마음에 좀 힘들게 하더라도 더 편안하게 잘 대해주자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맑은 눈으로 잘 들어주어서 우리가 준비해간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체험으로 한 나라의 문화를 온전히 체험할 수도 있지만, 자유 학기에 맞춰 8차 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배경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우는 시간을 시작으로 각 나라마다 문화적 배경지식과 고유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각 나라 문화를 되짚어 보고 각 나라의 인상적인 것에 대한 감상을 나누기도 하고 수업 후 변화된 생각을 가져보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중 나라별 다문화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 각 나라의 생생한 언어와 패키지여행에서 알기 어려운 음식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음식체험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 친근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상체험을 통해 마치 원어민처럼 된 친구를 보며 즐거운 체험이 될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8

숨겨진 영화를 찾아라! 우리동네 영화제 기획자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선일여중)



처음에 상업영화 중심의 유희적 영화 보기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독립영화를 소개할 수 있을지, 또한 영화 만들기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과정이 알려지지 않은 영화제 만들기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최대한 쉽고 재미있는 과정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영화 읽기의 경우, 독립영화는 지루하기만 하다는 편견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영화 중에서도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독립영화 중에서도 쉽고 재미있지만, 체계적으로 영화 읽기가 가능한 작품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런데도 영화를 보지 않고 자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 우려하였지만, 다들 성실하게 영화를 보고 영화를 읽어내는 과정에 참여해 주었다. 특히 '상징'이나 '재현'의 경우, 영화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영화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 쉽게 전달하고, 해당 방법에 익숙해져 다른 영화 감상에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전달하였다.

수업의 주된 주제였던 영화제 만들기의 경우에는, 영화제에 가 본 경험이 거의 없고 영화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의 학생들이라 이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역시 기대 이상으로 열성적으로 임해주었다.

영화제의 필수 요소인 영화, 관객, 장소를 소개하고,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과정을 자세히 전달하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영화제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역할들을 분담시켜 수행토록 하였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우왕좌왕하는 듯하였지만, 어느새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홍보 계획을 세우기 위한 회의에 모두 협력하여 조화롭게 참여하였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영화를 소개하는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어서 원하는 만큼 영화 해설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강사의 더 적극적인 지도와 도움이 필요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영화제를 개최해본 적이 있고 영화제 다니는 데 익숙한 강사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영화제가 갖는 연대와 우정의 힘을 환기할 수 있었다.



9

마을 숲, 생명과 함께하는 놀이터

물푸레생태교육센터(영락중)



❶ 학생들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 접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았다. 솔방울을 가지고 피보나치 수를 찾아봤는데 의외로 어려워했다. 오히려 솔방울을 유성펜으로 칠하면서 꾸미는 것을 더 즐겨 했다. 열 개의 점을 무작위로 찍고 가까운 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삼각형을 그린 뒤 선마다 수선을 내려서 선끼리 연결하여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다. 수선을 그을 때 도구를 써서 제대로 그린 학생은 제법 무늬가 잘 완성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은 수직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무늬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자연이나 생활 속에서 피보나치 수를 찾아보거나 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표현된 자연물들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❷ 백련산을 올라가면서 나뭇잎을 채취할 때 서로 다른 나뭇잎을 모으는 과정이 좀 더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나뭇잎을 매끈한 나뭇잎과 거치가 있는 나뭇잎으로 나눌 때 조마다 선정 기준이 다르기도 했고 채집한 나뭇잎의 숫자도 달랐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조마다 다르게 왔다.

❸ 서울시 기상청 데이터와 정확하게 연평균 기온 값이 나온 조가 1조 있었다. 학생들이 신기해했다. 나머지 3조는 연평균 기온 값이 조금 낮게 나오거나 3도 정도 낮게 나온 조도 있었다. 왜 그런 값이 나왔는지 여러 의견이 나왔으면 했는데 학생들이 좀 소극적이었다. 토론을 이끄는 법이 좀 미숙했던 것 같다. 기후변화와 우리의 생활 습관에 대해 정리해 주는 것으로 수업을 마쳤다.



④ 나무의 키를 재어 보는 활동을 할 때 어떤 조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나무의 키를 유추해 내는가 하면, 나무에 직접 학생들의 키를 대보고 몇 배 만큼 되는지 어림잡아서 계산해 내는 조가 있었다.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한 값도 다 다르게 나왔는데 왜 그런 값이 나왔는지 이야기도 나누었다. 나무 나이를 계산해 내는 방법을 신기해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별 관심이 없는 학생도 많았다. 몇몇 학생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나무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였다. 좀 더 학생들의 관심을 끌 만한 활동을 마련해 봐야겠다.

⑤ 같은 나무의 키를 재는 방법이 서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수고측정기를 이용한 측정결과도 서로 다르게 나와 재미있었다. 다른 분야의 활동을 하는 학생들과 같이 운동장을 써서 그런지 평소보다는 조금 산만한 분위기였다. 나무 표면적 계산이나 광합성량 등도 계산해보고 싶었으나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⑥ 칠딩굴을 둥글게 말아서 리스 틀을 만드는 것을 학생들이 어려워했으나 서로 도와가면서 만들었다. 리스를 꾸밀 재료에 대해 질문도 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칠레 열매를 세로로 잘라보기도 하면서 그 안에 가득 들어 있는 씨앗을 관찰하면서 신기해했다. 나름대로 개성 있는 리스를 만들었으며 특히 자신이 만든 작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조심히 다루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결과물이 흡족하게 나와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⑦ 칠딩굴을 건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였지만, 친구들이 모두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는 되어서 모두들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었다.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흡족해하는 것을 보니 아침에 바쁘게 재료를 준비한 보람이 있다. 마치고 보니 좀 더 많이 산에 갈 수 있으면 좋았겠다 싶고, 더욱 친숙하게 산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하는 아쉬움도 생긴다. 나름대로 활동에 진지하게 임하는 친구들도 많아 활동시간이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다. 담당 선생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무난한 활동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10

재미있게 배우는 항공, 드론 조종사 체험 교육

바이플러그(주) (불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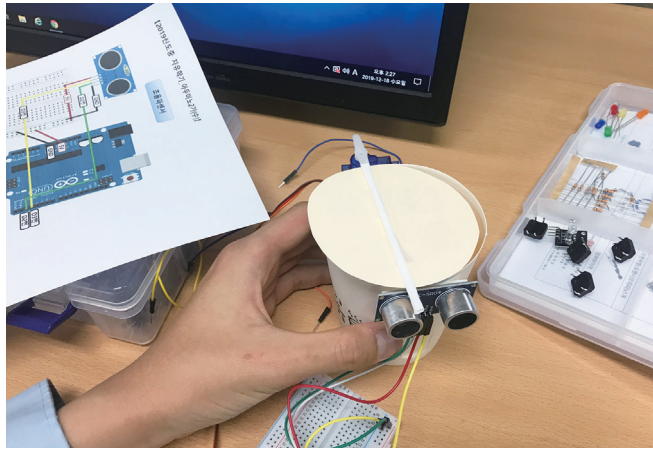
2017년부터 은평 마을방과후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은평구의 다양한 학교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드론 수업은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수업이지만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이 평소 관심 있던 드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단순히 드론을 조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드론이 왜 하늘을 나는지, 과연 드론의 형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 정확한 드론의 정의에 대해서도 배워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여러 가지 드론에 관해 설명하고 그 후 학생들이 처음 본 형태의 드론인 페이퍼파일럿으로 양력과 조종 면에 대해 학습해 드론이라는 비행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쿼드콥터 조종, 나아가 코딩 드론을 활용하여 앞으로 드론은 단순한 조종뿐 아니라 컴퓨터의 영역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을 지도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학생들이 드론을 날려보는 경험을 즐거워했다는 점입니다. 즐거움이 수반된 배움의 시간이 의미 있었기를 바랍니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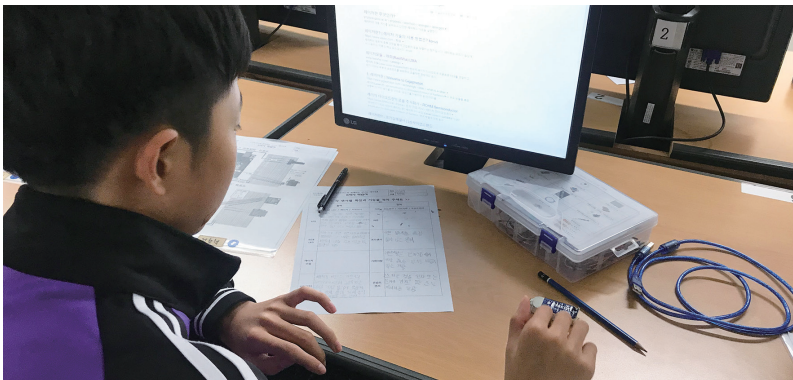
아두이노와 함께하는 스마트메이커

서경숙^{파이썬소프트(신도중)}



학교들과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하는 강사가 학교수업을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건 보조강사입니다. 하지만 보통 학교에서 보조강사까지 수업에 참여하기엔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서 지원받아 수업할 때는 보조강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 아이들과 강사의 만족도가 높고 질 좋은 수업이 됩니다.



12

토털뷰티디자인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예일여중)

토털뷰티디자인은 메이크업과 네일케어를 함께 수업함으로써 현재 중, 고등 여학생들의 관심사인 뷰티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실제로 중, 고등 여학생 중 많은 학생들이 메이크업에 관심이 지대하고 직접 성인의 메이크업 테크닉과 견줄 만큼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메이크업기법과 도구 사용의 학습은 그들의 건강한 뷰티를 위해 중요한 학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들이니만큼 뷰티에 대한 관심과 미래직업으로서의 기대로 문외도 있어 직업체험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뷰티서비스는 고객 대면 서비스로 학습에서도 학생 상호 모델과 시술자로서 배려와 협력을 위한 설명과 실습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 간의 우호와 긍정적 관심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일아트 수업은 본인의 예술적 감각과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후에는 가족들에게 시술도 해봤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네일아트 작품제출은 수업 후 결과물을 완성하였다는 뿌듯함과 다양한 아트기법을 학습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 학생들이 더욱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입시를 위한 학습 외에 재미있는 뷰티학습을 통해 본인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고 타인과 배려, 협력을 배우는 학습기회였습니다.

13

잼스틱과 함께하는
타악기 여행

서울심포닉밴드(선일여중)



교육콘텐츠를 통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함에 따라 단순 관람하는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무대에 직접 나와서 뮤지션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다.

학교별 난타팀이나 공연 가능한 팀과 사전 조율을 통해 함께 공연 레퍼토리를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14

반세기. (반전 세계문화 기행)

송연희(송실중)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하여 반. 세. 기(반전세계기행) 콘텐츠 수업을 송실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2차시 총 10회차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마다 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뿌듯하다. 이번 송실중 자유학기제 수업을 돌이켜 보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대륙별 다양한 문화권 나라의 문화를 살펴보고 만들기, 요리 등으로 직접 문화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 차이를 알게 되고 넓은 세계관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각 나라의 특징이나 문화가 아닌 반전이 있는 역사나 문화에 대해 알고 흥미로워했으며 각 나라의 수업을 정리하며 여권이나 모뎀 활동으로 각 나라를 소개하는 활동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들의 경험에 따른 나라별 특징이나 여행담을 스스로 발표하며 친구들과 공감대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통해 실질적인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이번 수업을 마치며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수업에 참여하고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활동하는 콘텐츠가 더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콘텐츠 개발을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통통 튀며 항상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해 준 송실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다.

15

감성을 담은 글씨, 캘리그래피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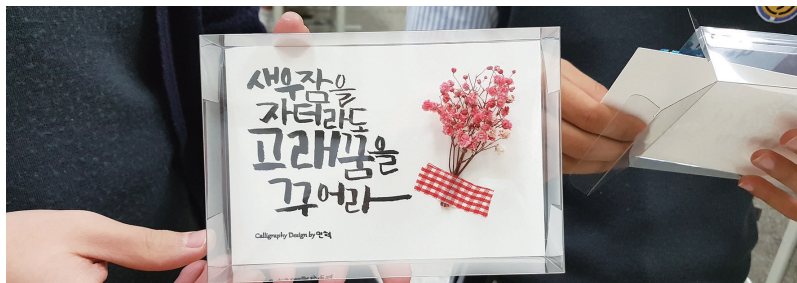
예미담(연서중)



3년에 걸쳐 연서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환기 시기에 캘리그래피 수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첫해는 각반마다 1회기씩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두 번째 해는 2회 기씩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캘리그래피 수업을 더 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올해는 3회차씩 배정하였다는 주임 선생님의 말씀에 감동과 함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복잡하고도 들떠있는 감정에 캘리그래피 수업을 통한 마음의 정리와 더불어 각자 본인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표현하여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작품들에 만족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으로서의 마음뿐 아니라 엄마로서의 마음까지 더해져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대견스러움을 느낍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시간 수업에 들어오셔서 분위기도 함께 잡아주시고 협조해주시니 수업 진행 내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해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는 더 큰 책임감과 보람이 느껴집니다.



16

꿈꾸는 카메라: 사진으로 배우는 인문학적 감수성

이명훈(숭실중)



첫 주 강의 참석차 학교로 가는 길에 중학교 정문을 찾기가 힘들었음.
고등학교가 함께 있었던 관계로 첫 강의를 마친 후 학교구조를 파악함.
중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중학생들에 대한 수행평가를 개인별로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음.
사진 강의에 대한 어려운 내용을 중학생들이 관심 있게 들어줌.
이론에 대한 강의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이나 간접적인 체험 교육이 필요함.

17

생각나라 보드놀이터

이민아(충암중)



충암중은 자유 주제 선택의 형식으로 9차 시까지는 남학생, 다음 8차 시는 여학생이 수업을 받았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선택으로 집중도가 매우 높아 수업의 분위기와 수준이 높았으며, 단계별 이해도도 높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수업할 수 있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전략 보드나 창의 퍼즐과 같은 활동과 더불어 오조봇을 통한 코딩을 경험하게 하여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수업이라 생각한다. 많은 부분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수학적인 이해력을 높이고 학력 신장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었으리라 자부한다.

은평구 내 많은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아이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물론, 학력 신장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



18

두드려라~! 그러면 마음이 열릴 것이다.(난타)

조윤정 마을공동체 (연천중)



연천중학교는 2016년 세라토닉 드럼교실이 따로 있는 학교로 4년째 은평 교육 콘텐츠연계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해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는 부장 선생님 너무나 관심과 애정으로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두드리면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의 복소리. 저보다 더 먼저 와서 악기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기대와 호기심으로 행복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새롭지만 새롭게 자유롭게, 예의를 아는 사고의 전환과 젊음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그들만의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은 활기가 넘치고 열정으로 자신감을 갖고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학생과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통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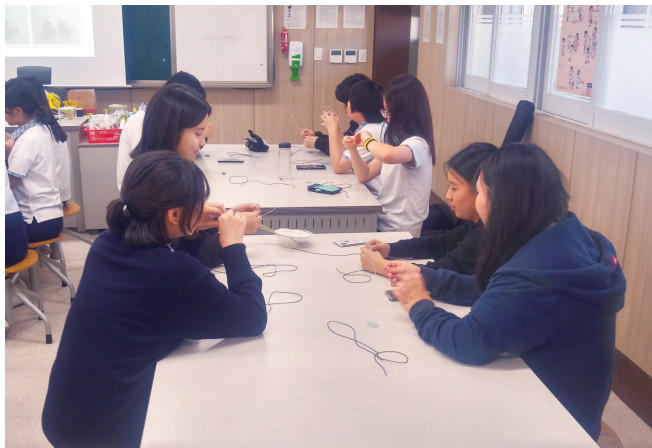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9

나는야 에코맘
녹색생활실천가

지구지킴이에코맘(선일여중)



선일여자중학교는 환경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로 2018년과 동일한 프로그램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다수 있어 기존 제출된 프로그램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 요청하여 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환경 동아리반 학생들로 수업을 진행하니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담당 선생님들 또한 관심이 많았고 학생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즐겁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세상 만들기” 주제로 한 ERRC분석 모둠 활동에서는 모든 학생이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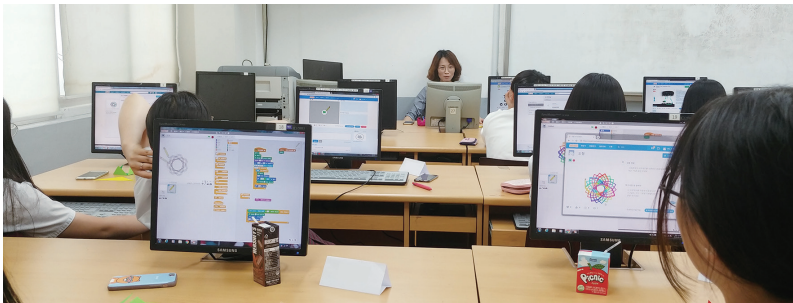
20

실생활의 소재를 이용해 스크래치로 놀아보기

최지영(예일여중)



처음으로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마을 안에 있는 학생들과 수업을 할 기회여서 설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내기 선생님이지만 아이들과의 소통과 프로그램 방향에 대해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한 단계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수업은 학교 담당 선생님의 소통과 협조,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생각했던 일정대로 수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업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방과 후 수업이고, 제 수업의 재미가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학교 측의 타 프로그램과 겹치는 일정이 다소 있기도 했습니다. 수업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일정의 중간에 오시면 활기차고 유익한 수업을 보여드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지막 날 오셔서 개인적으로 부담도 되고, 아이들과 훈훈한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은평 교육콘텐츠가 은평 아이들에게 재미와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보며, 저 또한 더 재미나고 흥미로운 수업을 준비해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지원 사업에 감사드립니다.



21

진로탐험대-기업가정신
(미니컴퍼니창업대전)

케이로드넘버원(구산중)

프로그래밍처럼 학생들과 함께 진로 탐험을 다녀온 듯하다.

알 듯 말 듯 한 진로를 재미있고 신나게 탐색하고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찾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신들의 꿈과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성격 분석과 직업 가치관을 찾아가고 자신의 꿈을 향해 목표설정을 하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하려는 활동과 창업하기 활동에서는 정말 창의적이고 구체적이며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는 멋진 모습이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하면서 은평구의 학부모로서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다양한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뿌듯한 마음과 앞으로의 발전된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더욱 큰 관심이 생겼다.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학생들이기에 더욱 애정과 열정을 다해 수업에 임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더 나은 꿈과 미래에 대해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소명감도 가질 수 있었다.

더 즐겁고 행복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학생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발을 맞추어 나와 지역과 교육이 함께 달려가는 멋진 은평이 되기를 기대한다.

22

‘같이’의 가치를 위한 예술 공감 프로그램 “비보이와 함께하는 춤 여행”

크로스웨이브기획(대성중)

기말고사를 끝내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사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만족한다.

단순 관람하는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무대에 직접 나와 뮤지션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었기에 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23

‘캘리그래피’ 먹과의 만남 아름다운 서체



한국나비아트스쿨문화원(신도중)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으로 신도중학교에서 “ ‘캘리그래피’ 먹과의 만남 아름다운 서체” 프로그램으로 자유학기제 캘리그래피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의 연장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서체 향상과 캘리그래피 서체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서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음부터 단어와 문장 그 외 일러스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캘리그래피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으로 친구들이 수업을 통해 서체도 많이 향상되고, 회차에 따른 작품활동 시에도 의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거울부터 파우치, 그 외 작품들을 통해 실력이 늘어 가는 과정을 친구들도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안전수칙과 교육내용 등 강의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중학교 친구들과 캘리그래피 자유학기제 수업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4

수어는 내 친구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은평구지회(덕산중)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및 생활 속에서 익히는 수화 초급회화를 기본내용으로 진행된 덕산중학교는 시각표현법, 자모음지화, 수화노래 등을 통해 중학생(1, 3학년)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수업하였고 은평 마을 교육콘텐츠의 목적에 맞게 교사가 직접 참여하며 활발한 토의와 더불어 수화표현 등을 익혀봄으로써 학교에서 만나는 농인 당사자(교사)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공감해보고 더 나아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깨워주었습니다.



25

스토리텔링 도예



한국콘텐츠통합교육협회(은평중)

은평중학교와는 3년째 스토리텔링 도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학생들도 달라지고, 담당 선생님도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 학생들이 도자기 제작 체험을 즐기는 모습이다.

단 하루, 2시간 동안만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다. 도자기 관련 배경지식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시작할 때면 ‘또 이론 수업이야?’하고 실망한 빛을 띠다가도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에 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면 눈빛이 반짝거린다. 다소 과장된 유머에 제스처까지 써가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면, 웃음과 탄성이 쏟아진다. 몰랐던 것들,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신호다. 스토리텔링 도예 강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첫 순간이다!

스토리텔링을 마치고 본격 실습에 들어가면, 잠시 졸던 학생들도 깨어난다. 장난기 많은 학생들은 이때대! 하고 제멋대로 흙덩이를 주무르고 떼어내며 스트레스를 푼다. 이것도 좋다! 도자기 제작 체험이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니까.

그런가 하면 한쪽에선 도예가가 따로 없다. 어찌나 골똘히 집중하며 정성스럽게 매만지는지 말을 걸기도 주저될 정도다. 뜻대로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제작 원리, 과정은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학생들도 있다. 그것도 좋다! 그런 것도 허용하는 게 도자기 제작 같은 예술 체험 활동이 주는 자유로움이니까.

담소도 나누고, 서로 오가며 자유분방하게 진행되는 사이 학생들의 태도는 사뭇 달라진다. 진지모드 돌입! 웃고 떠들며 장난치던 아이들도 작품 만들기에 집중한다. 이런 것 때문에 보조강사도 없이 25명 내외의 학생들과 씨름하는 고충도 감수하게 하는 원동력인 듯하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그룹별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도구와 재료도 나누어주고, 너무 소란스러워지거나 장난이 심한 친구들을 제지해 주기도 한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방과후사업의 취지가 실현되는 현장의 모습이다.

3년째 진행하다 보니, 학교와의 관계도 친밀해지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실감하게 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예산 내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보다 즐겁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이템을 선정하는 일부러 수업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체험 활동을 한 후 학생들 소감까지 전해 듣게 된다. 작년에 수업했던 학생들이 아는 척을 하며 인사를 건네 오기도 하고, 준비물을 나르는 것을 보고 달려와 도와주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있어 마을 강사로서 보람이 배가된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학생도, 학교도 발전하고, 마을 강사도 한 치 더 성장한다.

그 가운데 은평 마을방과후지원사업이 있다!



26

너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줘 행복한 비폭력 학교 만들기 : 한울타리

한국평생교육상담협회(진관중)



작년에도 진관중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올해도 또 전교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월 중순에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작년엔 신학기 시작하면서 바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3월 중순부터 학교 폭력 예방과 인성교육을 겸한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학기 초가 아니라 친구들끼리 조금은 서로 친해 있어서 진행이 수월하고 진행하는 면에서 전달 내용과 친구들끼리 활동이 더 진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의미와 인성의 의미를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관점과 학교생활을 함께 있어 우리 반에 필요한 이야기를 구성해 보며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 내용을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 기법과 게임을 적용하여 진행해서 그런지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각 차시의 내용에 대해 친구들과 공동작업을 함께 잘 대처하였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용어나 예시에 어울리는 상황, 정보에 대해 협업 작업도가 높고 이해도가 빨랐습니다.

함께하는 퍼실리테이션 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의미와 정보에 대해 많은 대화와 친구들 간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성의 의미에 대해서도 친구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모둠별로 토론한 정보로 소통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고 발표를 통해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별 또는 친구들과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기를 믿어봅니다.

27

체험위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의와 은평 청소년 미디어 축제



협동조합 청청(불광중)

요즘 청소년들에게 미디어와 유튜브가 대세가 되다 보니 이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가르쳐도 열정적으로 배우고 해보려는 학생들의 열의가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한 친구는 배운 영상편집 기술을 통해 자신의 교회 수련회에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자랑도 하여 뿌듯했습니다. 또 다른 한 학생은 팀별 과제로 내준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학생들에게 이번 강의가 실제로 영상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었는지 묻자 모두가 그렇다는 반응이었고 재미 또한 있었다 하였습니다. 주제도 재미있고 실제로 경험하는 학습이 학생들에게는 더욱 알차 보였습니다. 강의시간 외에 숙제를 내주었는데 싫어하지 않고 곧잘 해냈습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쉬웠던 점은 여름 방학 기간에 강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가족 여행이나 교회 수련회 등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인원이 많이 안 오는 날일 때면 강의 분위기가 해이해지는 쪽으로 느껴지기 쉽고 서로 피드백을 하는 자리에서 소통의 양이 줄어들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강의가 끝나고 청청 미디어봉사단에 참가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청소년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은평 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청소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을,
고등학교와

함께
하다

1

교과서에 소개된 세계 속의 우리음악!! 타악그룹 공명의 흥겨운 악기여행

공명(예일디자인고)



- ❶ 담당 선생님과 사업선정 후 지속적인 연락으로 공연 일정 및 준비 진행에 어려움 없이 진행됨.
- ❷ 공연 안내 포스터 및 소식지를 직접 학교에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관객들에게 도움을 줌.
- ❸ 1, 2, 3학년 전교생(610명) 참여로 이번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우리 국악의 우수함과 특별함을 보여줌으로 우리 전통 국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



2

뮤지컬배우와 함께하는 유쾌한 뮤지컬

공연기획ASK(예일여고)

은평구 지역의 학생들에게 문화, 예술분야의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찾아가는 체험 공연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예일디자인고등학교에서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선보이며 학생들과 함께 체험 공연을 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인상 깊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한다면 더없이 좋지만, 시간상의 어려움과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도 아이들에게 이러한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기초부터 배우는 엔트리 코딩스쿨

김윤월(선정교)



2019년에는 여러 기관에 참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 수업 2곳을 주 강사로 참여하였고, 여중 코딩 방과후과정 보조강사와 유치원의 언플러그드 코딩 과정 보조강사도 참여하였고, 개별적으로 초등학교 실과과목 소프트웨어 부분만을 요청받아 엔트리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가 선생님을 믿고 맡기려면 선생님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지 않은지? 혹 검증절차를 거친다면 하는 분야도 프로그램도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등 사업 참여 1년 차일 때와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왜 3년 이상 된 분들을 선호하시는지도 이해가 되고 3년 이상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것, 강사가 원하는 것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만족시키는게 큰 관건임을 알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은평구의 교육사업이 무궁히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4

내추럴 감성을 키우는 소품공예

김은영 ^{수다쟁이 손가락} (동명여자정보산업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주면 좋을까를 고민하며 콘텐츠 사업에 제안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연의 감성을 심어주고 접하게 해주고픈 마음에 건강한 재료, 자연재료를 주제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결정한 3학년 학생들과의 수업은 업사이클링 소재인 양말목과 자연소재를 결합시켜 컬러를 선택하며 손으로 엮어 소품을 만드는 수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저학년보다는 처음 접해보는 친구들이 많아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진취적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작업하며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감각을 발휘해 만족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টে으로 학생들과 교감하는 시간이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재밌는 작업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5

나도 이제 셰프다.
예! 셰프

나래아트앤빈(신도고)



신도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셔야 할 아이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요리 수업, 바리스타 등 수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너무 밝고 순수하고 외적으로도 멋지고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해주어 저 역시 수업하는데 문제없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활발한 아이들이다 보니 수업시간에 교실 이탈과 장난을 치는 일이 많았지만 본인들이 만들고 먹고 포장하는 시간이다 보니 수업하는 동안에는 수다스러워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 역시 그냥 요리 가르치러 온 강사가 아니라 조금 더 친근감으로 다가가 같이 수업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10주 동안 그렇게 수업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회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왠지 모르게 뭉클하기도 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라도 집중하고 하면 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신도고등학교 수업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뿌듯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6

건강한 피부를 위한 아로마테라피



내추럴 힐링 아로마(신진과학기술고)

화학제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아로마테라피에 대해 널리 알리고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부터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소모임, 동아리 등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한 경험은 많지만 한 반 전체가 참여하는 수업은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단어조차 생소한 ‘아로마테라피’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걱정도 했지만 그 보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아로마테라피를 비용의 부담 없이 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설레임이 더 컸습니다.

‘아로마테라피’는 질풍노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육체적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여러 오일들의 향을 맡고 좋아하는 향을 선택해 천연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매우 흥미로워했고, 오일을 선택하는 내내 많은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 멀리서 달려와 본인이 만든 천연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때면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은평 마을방과후지원센터는 강사에게 필요한 여러 심화 교육 지원해주셨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하는 교육보다 내용이 좋아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 걸 느꼈고 그 분야에 꼭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과 얘기해 봐도 은평 마을방과후지원센터

처럼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 작년부터 참가했지만, 이 프로그램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매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은평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질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

전통과 코딩,
보드로 만나다

노는엄마협동조합(선정고)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으로 2019년 선정고등학교 동아리 수업을 진행하게 된 노는엄마 협동조합의 강사 김윤선입니다.

은평에서의 교육콘텐츠 사업이 자리매김 되어가는 과정에 다양한 교육자원을 이용하여 여러 연령층의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단체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초등과 중등과정에 비중이 많았는데 점차 고등학교 과정으로도 다양한 교육자원들이 프로그램화되어 학습과 체험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난 선정고등학교 동아리반 친구들과 “전통과 코딩, 보드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11차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보드게임을 통해 보드게임의 역사를 배우고, 그 안에서 각 나라의 전통을 알아가고,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컴퓨터적 사고의 확장을 보드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게임에 대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보드게임을 즐기고 배워가면서 꿈과 진로에 대해 막역한 친구들에게 자기만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보드개발자, 게임 디자이너, 게임의 편집자, 게임지도사 등의 다양한 직업으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한 선정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사춘기를 조금은 벗어난 나이에 맞게 전체적인 학습의 이해도나 참여도가 좋았으며 서로의 문화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즐겁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모습에 만족스러워하며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8

예쁜얼굴 가꾸기와 나에게 맞는 기초화장품 만들기

로하스협동조합(선정국제관광고)



10회기 프로그램으로 피곤할 수도 있지만, 회기마다 담당 선생님이 미리 교육을 준비해주어서 바쁜 수업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준비를 시켜 수업 진행이 원활하였으며 준비된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무척 예의 바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수업 내내 행복했습니다. 특히 1회기의 시작 도입 부분에서 학생들의 알고 싶은 욕구가 높아 10회기 진행의 프로그램 정보 알리는 무척이나 가슴 벅찬 수업이었으며 교육콘텐츠를 8년 동안 진행했지만 한 반의 모든 학생들이 서로 위하며, 모두가 집중하는 것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또한, 선생님과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교과과정에 채택하고 싶을 만큼 반응이 좋아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9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융합정보 이해와 체험

메타인지센터(대성고)



작년에 맺은 인연이 올해까지 이어졌다. 작년에는 마을 방과 후 시범사업으로 만날 수 있었으며 더욱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12차시로 구성된 다양한 수업 및 다양한 재료로 더욱 알차게 진행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콘텐츠 수업으로 만나다 보니 작년보다 조금은 축소된 진행이 강사로서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열정을 가진 톡톡 튀는 학생들이 수업을 신청하였다.

예정보다 2명이 많은 22명이 신청을 하였다고 하시어 재료비 때문에 고민하였으나 마을 강사의 사명감으로 약간 넘는 부분은 내가 해결하기로 하고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부탁을 수용하였다.

대성고 학생들과의 만남은 나에게도 특별한 만남이다. 관심 분야의 수업이라서 그런지 집중하는 모습도 남다르고 질문의 질도 상당히 높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질문에 답을 하느라 20~30분 정도 늦어지는 일은 다반사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수업이 끝날 때쯤엔 ‘벌써 끝나요? 내년에도 하세요?’라는 학생들의 답변이 나를 더욱 뿌듯하게 만들어준다. 교감 선생님은 수업을 격려하러 들어오시어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신다. 수업을 신청해주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인 내가 멋쩍어지는 인사다.

내년에는 콘텐츠가 한 개로 줄어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내심 내년에 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0

진로를 선택하는 다섯 가지 질문, 콘서트 <5Questions,진로와 인문학>



문예콘서트(동명여자정보산업고)

진로 강의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한 강의를 준비할 때 가장 큰 핵심은 ‘강연 이후’였습니다. 그간의 획일적인 매뉴얼식 진로 특강의 내용을 지양하고 인문학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와 좋아하는 것 등을 스스로 질문하고, 내면을 돌아봄으로써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문학과 과학, 심리학 자료를 제시하며 몰입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때 학생들의 집중력과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강연 이후에도 여러 학생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주었으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노래 콘서트

진로를 선택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청소년 시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예술 활동 중의 하나가 시와 음악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음악 공연을 준비하여 ‘봄길(정호승 시)’, ‘새로운 길(윤동주 시)’ 등의 시 노래는 물론, 위로와 격려가 담긴 기성곡 편곡을 통해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날 들려줬던 시와 노래를 떠올리며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

바리에테 찾아가는 쇼콰이어 뮤지컬 스쿨



바리에테 창의체험단(하나고)

1회 때부터 올해로 8년째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하며 이제는 겨울에 진행되는 이 행사가 학교 쪽에서도 하나의 전통이 되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저희 강사들의 입장에서 점점 의미 있는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 지원 대상자분(독거노인)을 선정하고 아이들과 대상자분들을 직접 찾아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또 낮아지고, 태어나 처음 접하는 어려운 환경을 접하며 열심히 자선 공연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또 공연 후에 관객들께서 모아주신 사랑으로 독거노인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선물로 들고 찾아뵈실 때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나 저나 바쁜 일정 속에서 겨울에 큰 규모의 교육과 공연을 만드느라 매년 힘이 들지만, 교육과 공연, 이를 바탕으로 한 자선이라는 지역 사회 선순환의 실험들이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낍니다.

매년 주어진 공연의 틀 속에서 디제잉, 브이제잉, 미디어아트라는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경험 역시 소중한입니다.

학생들로부터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수준의 공연, 이런 콘텐츠가 담긴 공연에 참여해 본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말을 듣고, 또 학생들에게서 듣는 감사와 높은 만족감이 담긴 이야기들 역시 기획, 운영, 교육자로서 뿌듯함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들과 매년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짧은 소감을 갈무리합니다.

12

토탈공예

박상희(신도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들은 수업을 자주 빠지는 아이들이었으므로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업시간에 들어오는 것도 들쭉날쭉, 만들다가도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진행하다 재밌다고 느끼는 것은 서로 더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만드는 것에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흥미를 느꼈지만, 점차 남자아이들도 열심히 자신만의 색깔을 내며 만들었고 수업 일이 아닌 날 지나다가 마주쳤는데 큰 소리로 불러 아는 척을 해주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고마웠는지...

좋은 아이들과 좋은 선생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3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잡학역사(알쓸신잡)

박은영(선정교)



우리 은평구 아이들에게는 공교육 외에 색다른 체험(배움)의 기회를 주고, 저 같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를 하면서, 여기저기 새로운 일을 찾아보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할 수 없었던 차에 작년에 ‘은평 마을방과후지원센터’의 교육콘텐츠를 알게 되어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역사 공부를 재미로 배움의 기쁨에만 그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12회차 수업이 들어와 기쁨과 걱정을 함께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지만 역사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 모인 게 아니라 참여율이 낮아 실망도 하고 때로는 강의하러 가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몇몇 아이들의 관심이 나갈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자는데 외부 강사는 더 심하다.’, ‘설민석이 아닌 이상 집중하기 힘들다.’ 등 위로의 말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구실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들이 사실이라도 제시간에 아이들이 잔다는 건 제 책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이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나가고 연봉(?)이 ‘88만 원’이지만, 약속 잡을 일이 있을 때 강의 나가서 안 된다고 말할 때면 맘속에선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분이 들어 기뻐했습니다. 요즘 전환기 수업에 참여하는데 수업준비를 하면 저에게도 학습의 기회도 되지만, 아이들에게 머리에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슴에도 남을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도 세우게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의 경험을 통해 ‘기회는 준비와 노력이 가져다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제 수업의 아이들에게 큰 성과는 주진 못했지만, 주변 선생님들의 콘텐츠를 보면 학생들이나 강사님들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되어, 교육콘텐츠 사업이 확실한 자리매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신 여러 종사자에게 강사로서, 학부모로서 감사드립니다.

14

행복한 연극교실

수이앤엠(선정고)



대입을 앞두고 바쁜 일상에도 연극반 수업과 발표회에 많은 정성을 쏟아준 선정고등학교 연극반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했던 시간 동안 느꼈던 기쁨이 학생들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무대 예술은 수없이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을 투자하여 “오직 단 한 번”의 공연을 만들어 내야 하는 작업입니다.

아갑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 한 번의 공연에서 느끼는 쾌감과 짜릿함, 결국은 해냈다는 성취감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 무대 예술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의 길고 고된 경험과 우리가 함께 이룬 성취가, 연극반 학생들의 앞에 펼쳐진 삶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보람되었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15

3D프린팅을 이용한 제품 만들기

신윤경(선일이비즈니스고)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2년 차로 참여를 하면서 처음의 떨리고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뿌듯함과 보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채워져 갔습니다.

처음 수업을 할 때 이게 맞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했던 고민들은 아이들과의 호흡 속에서 자연스럽게 답을 찾게 되었고, 아이들의 재미있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한마디와 작년에 가르쳤던 아이들까지도 카톡과 메일로까지 질문하는 적극성에 보람과 기쁨의 시간을 보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또 듣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내가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잘 참여를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다 보니 수업커리큘럼도 좀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저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아닌 3D 프린팅을 조금 먼저 시작한 선배의 자세로 아이들에게 더 나눠주고 호흡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감사드립니다.

16

즐겁고 신나는 빵, 쿠키, 케이크 만들기



아미드빵(은평메디텍고 3학년)

제과제빵 수업은 학교수업의 일환인 동아리 수업과 자비 부담으로 하는 방과 후 수업이 있다. 동아리 수업은 100% 자비로 하며, 방과 후 수업은 자비 및 지원을 통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제과제빵 동아리 수업,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의 지원이 없어서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데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통해 참여가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은평메디텍고등학교 학생들은 20명으로 조리과 학생들이 약 10명 이상 함께 참여하였다. 조리과 학생들의 참여로 조별인원수를 4명 기준으로 하여 더 많은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조정을 하였으며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제법을 경험해 보도록 계획하였다. 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겹쳐서 2학기 내내 진행되는 수업임에도 결석생이 많이 없고 모든 친구들이 잘 참석하여 나름 보람된 시간이었다. 특히 조리과 학생들에게 이번 수업이 추후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시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기를 바란다.



17

EM친환경 핸드메이드 교실

예코맘협동조합(세명컴퓨터고)



다양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배정되어 수업 때마다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고 pH 테스트를 통한 과학실험으로 학생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수업이어서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체험 수업을 했던 학생들의 피드백이 담당 선생님께 전달되어 더욱 뿌듯한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이었다. 고등학생들이라 수업 태도도 좋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담당 선생님들 또한 관심이 많았고 학생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즐겁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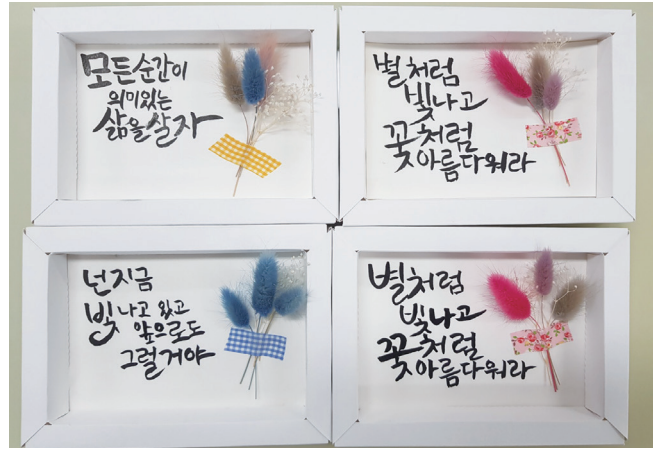
학교 일정으로 수업 일정이 자주 변경되는 부분은 있었으나 학교와 일정 조율을 잘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18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소품만들기

예린공방(은평메디텍고)



작년까지는 다른 선생님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며 은평 교육콘텐츠 수업에 참여하여서 서류준비나 수업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서류와 수업들을 준비하며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수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콘텐츠 수업에 참여하며 만나는 학생들에게 캘리그래피를 조금이라도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도움이 되는 수업시간이 되길 바라며 수업을 준비했고 진행해왔는데, 수업 인원은 적었지만, 참여한 학생들이 수업시간마다 어떤 것들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만들기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신기해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학생들과 만나 캘리그래피 수업의 즐거움을 많이 알려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19

코딩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오상희(선일여고)



입시로 힘든 아이들이 보드게임과 다채로운 제작 교구, 대형 교구들을 활용하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움을 즐기는 것을 보면서 보람이 컸습니다.

내년에도 수업 예약한다며 늘 믿고 지지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즐겁게 함께 해준 아이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다양하고 향상된 콘텐츠로, 더욱 즐겁고 유익한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20

찾상 머리 인성,
예절교육

유진문화센터(선정국제관광고)



학교에서 교과 시간에 하기에는 다소 힘겨운 프로그램 활동을 콘텐츠 마을 강사를 통해 체험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찻자리 체험 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 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다.

생소하고 낯선 명칭과 도구들을 접하며 다소 어색할 것 같았던 분위기는 많은 친구들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전통예절과 다례 예절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절(인사)의 각도, 다구를 다루는 방법, 차를 우리는 기술, 오감을 이용해 차를 음미하는 방법, 손님에게 차를 내는 순서, 찻자리에서의 다식을 먹는 예의 및 담소 등 버거울 것만 같았던 수업을 학생들은 참으로 열심히 짧은 시간에 익숙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갔다.

옛 사람들의 고리타분한 문화라는 생각보다는 올바른 예절을 익힘으로써 조금 더 차분하고 바른 인성으로 교양을 갖추고자 하는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콘텐츠 기관으로서 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전통 예절과 전통 문화 등 우리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관이 우리 은평에도 만들어져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품위있는 은평의 교육 문화 공간이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

21

감동드림시네마, 삶과 진로를 배우다

이경숙(충암고)



학교 일선에 계신 선생님께서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에게 영화를 통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르치고 싶으시다며 강의를 의뢰하셔서 많은 대화를 통해 영화를 보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을 6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영화를 보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거나 잠을 자는 시간, 학원숙제를 하는 시간으로 이용하려는 친구들이 많았으나 횟수를 더해갈수록 영화를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고 마지막 수업에 그동안 꾸준히 작성한 영화 다이 어리를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친구들도 마무리에는 생각하는 시간도 되었고 즐겁게 영화 관람하는 방법을 깨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눈높이를 맞추어 학생들과 소통을 해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과 성적에 메이기보다 자신의 생각, 자아를 키워나가는 시간을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참여한 저의 수업을 통해 꿈을 찾아가고 인생의 행복을 향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기회를 가지게 되길 기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2

청소년 집단 미술치료

이영미(동명여자정보산업고)



특성화고등학교인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람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첫 시간 첫 만남의 기대와 미술치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으로 즐겁게 시작할 수 있었다.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다 보니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비교적 크지 않지만, 성적 위주의 사회 환경과 가정적인 환경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이 있는 학생들이 다소 있어 미술치료 목표를 자기 이해를 통한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으로 하였다.

집단 상담에 앞서 집단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학생들과 의논하여 3가지를 정하고, '인터뷰 게임'으로 친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DAS그림검사를 하여 학생들의 우울감 정도와 공격성에 대해 알아보고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상하며 긴장을 이완하고 '동굴화'를 그려봄으로써 자신의 현재 고민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미술 작업에 집중하여 몰입하였고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며 각자 나름의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자신의 그림을 해석해줄기를 원했고 단기 미술치료인 점을 고려하여 치료사는 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었고 학생들은 치료사가 자신의 힘든 마음을 알아봐 줄 때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고, 집단미술치료의 장점인 친구들의 피드백을 통해서도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주었는데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으며 공감해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줘서 보람을 느꼈다.

꿈많은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오히려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었고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

그리고 은평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통해 일반 학생들에게 미술치료를 경험해볼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3

아두이노 개발자 메이커 되다.

이홍준(대성고)



나의 경우 현장에서 뛰는 현실감 있는 강사로서 현재 2019년을 사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사람으로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었으며 한층 심오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프트웨어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강의 중간중간 이야기해주는 전문적인 강의지식 등은 아두이노 수업에서 들을 수 없는 귀중한 교육내용이었을 것이란 생각해본다.

아두이노를 교육하면서 학생들의 '아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방법과 코딩 방법을 익히면 생각대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키워 줄 수 있어서 좋은 교육이라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제작에는 관심도 없던 아이들도 '아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고 상상만이었다가 현실감 있는 접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좋은 시간이 됐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24

긍정적인 또래 관계 문화를 만드는 우리는 친(한)친(구)사이

인공감심리상담센터(동명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소극적 성격이거나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학생들로 선별하여 관계 향상과 학교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와 의욕이 낮아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표정이 거의 없고 무기력해 보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의 학생들은 주로 간단한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정도로 그치는 모습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 대부분이 그 날의 프로그램에 관해 물어보며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표현 활동 위주의 작업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움을 보일 만큼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점차 적극적으로 주도성을 발휘하는 학생들도 생겨나면서 처음의 우려와는 다르게 전체 프로그램을 잘 따라 주었으며, 마치는 시점에는 교육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사진으로 찍어 담임선생님께 보내드려 제일 잘 한 것을 평가해 달라고 하고 공유하는 등 유쾌하고 활동적으로 진행되어 인상 깊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였으며, 학교에서 장소나 시간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학생들 중심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5

아트앤가드닝
-집중력향상을 위한 식물놀이

인올그린(진관고)



부적응친구들의 별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 교육목적을 수행 참여에 두었고 아이들의 호기심과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흙으로 마음을 담다

천연원료로 색을 낸 흙이라는 무의식 매체를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마음을 풀어내는 환경을 주었고 수국꽃으로 “부엌이신부/ 밥은먹고다니냐” 두 가지의 컨셉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꾸미는 작업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몰입도 좋았고 자기표현을 기반으로 주어진 공간을 채워내었다. 흙에서 주는 텍스처를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었고 꽃으로 마무리를 잘 담아내었다.

코르크감사화분(마음전달메세지)

다른 시간의 코르크감사화분만들기는 한 해 동안 나를 돌아보고 감사를 전하고 싶은 대상을 위해서 메시지 작업을 하였고 식물을 선택해서 감사화분을 만들어 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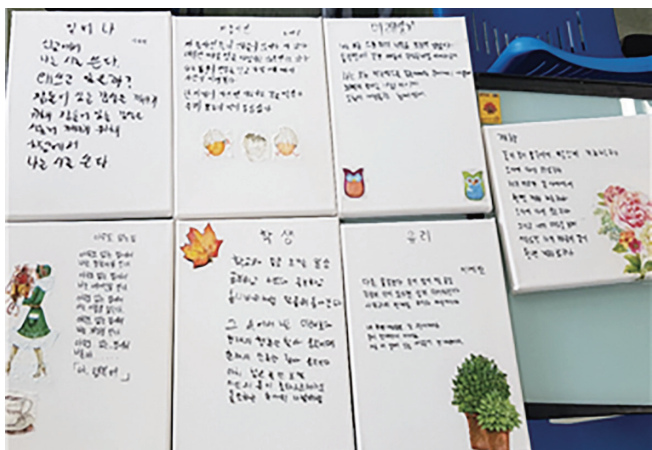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로 가족과 선생님 또는 남자친구 등을 떠올리며 나 아닌 대상을 위한 마음을 전달하는 작업을 잘 참여해주었다.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잠시 몰입하고 자기 개별성을 잘 표현해준 친구들과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26

‘와글와글 그림책 공작소’ (그림책+활동+만들기)

즐거운교육연구소협동조합(송실고)



교육콘텐츠연계사업으로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동기로 이 동아리를 선택했는지 궁금했다. 구성원 대부분 2, 3학년이 많았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소개하고 수업에 대해 솔직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고 싶은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계획을 같이 세웠다.

친구 따라온 학생, 일부는 여러 가지 동아리 중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다는 학생, 자신의 관심사와 연결되어서 온 학생 등 제각각이었다. 그래서 되도록 모든 구성원의 요구를 포함해서 동아리 수업 내용을 채우기로 했다.

그림책 읽기와 그와 관련한 만들기나 이슈 관련한 토론을 해보기로 했다. 또, 가끔은 영화를 보고 활동을 하기로 했고 또 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적어내면 그 곡을 준비해서 한 곡씩 듣고 가사를 읽어보기도 했다. 그림책의 주제선정은 요즘 화제가 되는 주제로 선정했다. 세월호, 위안부, 기후환경, 가족의 다양성, 성 평등, 직업, 진로 등에 해당되는 그림책을 읽고 그에 관련된 사회이슈와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매 수업의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었지만 만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아이들 하나 하나의 얼굴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수업 내용에 감정에 대한 그림책을 읽고 감정 카드로 현재 감정 찾아보기를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답답한, 긴장되는, 불안한, 조마조마하는, 부담스러운, 간절한 등의 부정적인 카드를 골랐다. 카드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입시와 진로에 대한 마음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한편으로 마음이 짊어지고 안타까웠다.

2학기에 수시 원서 쓰고 수능시험이 다가올 때는 훨씬 더 분위기가 가라앉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이 시간에 부담 없이 즐겁게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
길 바랐다. 수업의 관심도나 흥미와는 별개로 모두 다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등학생이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큰 성인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아이들을
볼 때면 왠지 미소가 지어진다. 함께 책 읽기를 할 때 어색함도, 만들기를 할 때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도 웃음이 난다. 모두가 잘 되길 바란다. 모두 원하는 대학
에 합격했으면 좋겠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자신을 책임하지 않길 바란다.
수업 마지막 날, 수업소감을 썼는데 “서로 친근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
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좋았으며 동아리 시간의 활동이 활력을 되찾는 기
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학 활동과 만들기 활동이 좋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동아리가 개방적이라 마음의 문을 빨리 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등
긍정적 피드백이 많아서 마을 강사로서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1회기 50분 수업으로 진행되어서 깊이 있고 여유 있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활
동까지 1회기 안에 꼭 이어나가기엔 어려웠고 교실을 빨리 비워줘야 해서 시간
에 쫓기는 때가 많은 점은 좀 아쉬웠다.

27

커피 바리스타 다양한 직업 기술 체험 과정

카페원코퍼레이션(은평고)



이번 은평 고등학교 수업은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커피 바리스타 다양한 직업 기술체험 과정이라는 제목을 통해 총 2시간씩 10회의 수업이 5월 7일 ~ 12월 5일까지 월 1, 2회씩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은 다양한 커피 문화의 체험 학습과 실습과 바리스타 직업에 대한 이해 기술과 장비 등 전문 도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커피 바리스타 제조 기술을 습득하여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커피의 개론을 시작으로 에스프레소 체험과 그라인딩 로스팅을 통해 커피 재료에 대한 사용방법과 도구 이용 방법에 대해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유 스티밍과 푸어링 등 제조하는 방법과 다양한 카페 메뉴 만들기를 통해 음료를 완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통해 학교 자체 내에 은평제 동아리 행사를 진행하여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학생들끼리의 협동심과 협력을 통해 메뉴를 준비하고 판매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수익금 일부를 복지기관에 기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며 전문 직업인으로서 직업과 기술을 소개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짧은 시간으로 인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향후 이번 경험을 통해 식음료 계열의 진로에 대한 직업의식을 인지하고 다양한 실습 경험이 초석이 되어 도움이 되었길 기대해 봅니다.

28

심폐소생술
“생명을 살리는 손”

한국재난안전연구소(세명컴퓨터고)

작년에도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올해도 또 만나게 되었다. 9월부터 시작된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겸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작년에 만났다면 반가워하는 친구들과 작년에 들은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들까지 반가움의 연속이었다.

늘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친구들 덕에 진행이 수월하고 진행함에 있어 전달 내용과 친구들끼리 활동이 더 진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심폐소생술의 의미 나의 행동 실천이 미치는 영향까지의 의미를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우리 반에 알면 좋은 안전 이야기를 구성해 보며 진행을 했습니다.

직접 도구를 이용한 체험 활동으로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각 차시의 내용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잘 대처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심장 충격기사용에 대한 용어나 예시에 어울리는 상황, 정보에 대해 이해도가 빨랐습니다. 함께하는 체험 활동으로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심장 충격기사용 교육의 의미와 정보에 대한 많은 대화와 친구들 간에 ‘생명 살리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심폐소생술의 의미에 대해서도 친구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각각의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 대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이야기를 통해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별 또는 친구들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실을 만들어가기를 믿어봅니다.

29

한지공예품 만들기

한양문화예술협회,
예지원(신진과학기술고)



1학기 동안에는 총 8회기 수업 중 4회기를 소품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여 여러 가지를 만들었고, 2학기 4회기 동안에는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학교 담당 선생님과 방과 후 센터 선생님과 협의하여 기존의 콘텐츠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더욱 난이도 높고 소장 가치가 있는 양질의 작품을 해 보자는 의견 아래에 큰 작품으로 도전하게 됨.

큰 작품은 “전통차상”으로서 제작기법이 일반적인 단순한 한지작품 기법이 아닌 일반 성인들이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여서 양질의 작품제작을 할 때 적용되는 “탈색기법”이라는 더 난이도 높고 까다로운 제작기법을 적용해야 하는 바임. 막상 해 보니 작업공간이 아닌 학교 교실이라는 부족한 작업환경 아래서 작업이 어렵기는 하였으나, 결국, 15명 학생 모두 각자 개성 있는 작품으로 완성, 아이들과 담당 선생님도 만족해하시고, 수업 지도한 저로서도 매우 흡족하고 뿌듯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30

나만의 천연공예품 만들기



함께하는여성협동조합(진관고)

2015년 성북구의 정인학교에서 정신지체 장애아들의 수업을 10주간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녹록지 않았던 10주간의 수업이었음에도 시간이 지난 후 한참 동안 아이들의 밝게 웃는 모습이 떠올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관고등학교에서 특수반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냐는 담당 선생님의 물음에 정인학교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잘 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간의 긴장과 설렘을 안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첫 수업 날.

뉴타운에 있는 진관고등학교는 꽃이 피어있는 산으로 둘러싸여 평화롭고 아늑한 느낌이었습니다. 수려한 학교의 경관을 감상하며 긴장을 풀고, 드디어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 저의 모든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아이들은 어찌나 친절하고 살갑게 대해주는지.

아이들의 순수하고 맑은 모습에 수업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게 수업을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매번 저희 수업 전 시간에 아이들이 만든 쿠키와 차로 대접해 주셨고, 아이들은 언제나 밝은 미소와 큰 호응으로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천연비누, 석고 방향제, 모기퇴치제를 만들며 진지했던 아이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목공수업을 진행할 때는 아이들이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더욱 신경을 쓰며 수업을 진행하였고, 하반기 저희 공방으로 탐방을 와서 수업했을 때에는 행여 오는 길에 버스는 제대로 탔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11회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도 성장하고 저도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어느새인가 아이들은 근사한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었고, 저 역시 아이들을 진심

으로 이해하고 사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7월 중순부터 함께 수업하게 된 주호는 중학교 1학년 때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에 현재와 같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호도 처음에는 낯을 가리며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마지막 승화머그컵을 만들 때는 누구보다 멋진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마지막 날 수업을 조금 일찍 마치고 롤링페이퍼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안부의 글을 적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적어준 글들이 너무나 예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선생님 가지 말라며 울음을 터트리는 윤서의 모습에 저도 주책없이 눈물이 납니다. 서로 울지 말라며 다독여주며 포옹을 하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진관고 아이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31

체스부

허정훈(동명여자정보산업고)



체스라는 게임을 장기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들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현재 연예인 활동과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기에 체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인생 선배로서의 질의응답을 10분 정도 강의하였는데 눈빛이 반짝이며 듣는 아이들에게 감동하였습니다.

32

미래직업 잡(JOB)지 :「창직(Job creation)」

홍희선(선일이미지니스고)







고등학교 벤처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정규수업 후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실제로 스스로 직업을 만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었습니다. 아이디어 발상 및 창직(새로운 직업 만들기)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만들어 내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싶어 했고, 그것을 위한 (app) 개발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단발성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무언가 시도하고 발전하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심화 과정이 추가로 제공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평구 학생들이 계속해서 질 좋은 교육을 통해 더 성숙하고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콘텐츠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축구선수	컨텐츠 판매원, 디자이너	제빵사	가수
무선멀디자이너	신문사, 기자	바리스타	MC
책과 판매원	공원 관리회사원	가구디자이너	프리랜서
제빙인생남	운동복 판매원, 디자이너	카페 사장, CEO	양육 디자이너
인공관지 잘아주는 분	벤처디자이너	여행개발사	미이크개발자, 수리*사
스포츠이미지리뷰시크 어용사	공원 디자이너	상점 MD	스타일리스트

33

건축직업체험 “학교로 찾아가는 건설현장 -건축챌린지”

힐링캠프(승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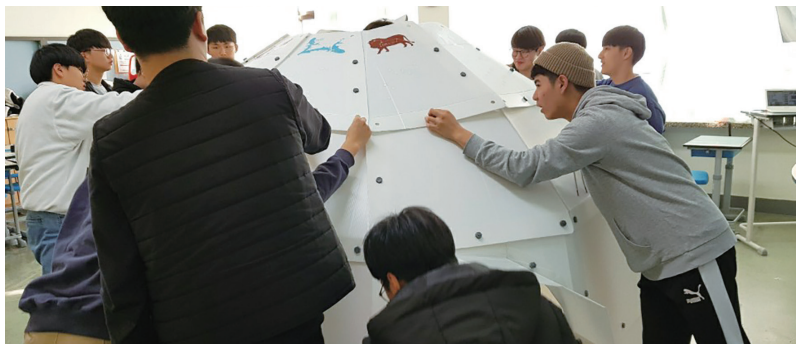


프로그램 에이전시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점점 형식적이고 질적으로 하락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진정한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였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청소년들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 무언가 진하게 얻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갈증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여 건축챌린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챌린지는 청소년들이 직접 설계도를 보고 블록을 연결하여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을 규칙과 원리를 적용하면서 건축현장을 모의체험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협동심이 극대화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승실고등학교 건축동아리 수업에 건축직업체험 “학교로 찾아가는 건설현장 - 건축챌린지”를 1년간 진행하면서 건축에 대한 호기심과 성취감을 느끼며 수업 시간마다 즐겁게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진 이 좋은 프로그램이 은평 교육콘텐츠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제
언

교육콘텐츠연계사업과 범람하는 거버넌스

전) 은평구청 정책실장 채희태

1. 2012년 교육연구모임을 추억하다

정확히 2012년 5월 21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으로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 은평의 민과 관과 학이 함께 모였던 때가…。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오은석 관장님, 마을N도서관 이미경 대표님, 평생학습관 김미운 팀장님, 서부교육지원청 프로젝트 조정자였던 정용기 선생님, 시립 은평 청소년수련관 조정현 부장님, 은학네 흥기복, 유성룡, 정상용 선생님, 역촌초등학교 김동찬 선생님, 은평구 지전가 대표 고정원 선생님, 그리고 당시 비서실 정책보좌관이었던 필자…。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오리발질을 했던 교육복지과 박남춘 과장, 김수지 팀장, 채지현, 이지영 주무관이 있었다.

사실 그 당시 필자는 거버넌스라는 말도 잘 몰랐고, 은학네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고, 김우영 구청장은 2012년 신년사에도 밝혔듯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강한 개혁의 의지가 있었고,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한 필자는 그 비상식적인 집행 관행에 의문이 있었을 뿐이었다. 돌이켜보면, 당시 필자는 앞에 놓여있는 여러 관성의 파편들을 어떻게 결합시킬지에 대해 이러저러한 상상을 했을 뿐, 그 상상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나 집착 따위는 없었던 것 같다.



파일 생성일이 2012년 2월 14일 되어 있는 교육콘텐츠연계사업 초기개념도(좌), 자금 보면 투박하기 이를 데 없다.

다양한 입장에서 비롯된 다양한 생각들이 이해관계로 충돌해 제한된 파이¹⁾의 크기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빈틈을 메워가며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콘텐츠를 통해 마을과 학교가 연계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열리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축적해 왔던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의 오은석 관장을 좌장으로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를 위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교육연구모임이 시작되었다.

1) 2012년 교육경비보조금은 총 45억원, 그 중 7억원이 예산이 가지는 파이의 크기였다.

교육연구모임은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 ① 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의 맹아적 형태로서 교육연구모임이 가지는 위상
- ② 마을과 학교의 연계, 협력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²⁾을 구체화한 최초의 모임
- ③ 교육연구모임을 통해 성공한 정책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인 예산, 정책, 주체가 마련된 점

기억할지 모르겠다. 수당도 받을 수 없는 비공식 모임인 교육연구모임이 지역사회 교육 콘텐츠연계사업의 성공을 위해 8시간 넘게 도시락을 까먹으며 열정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했던 그 수많은 날들을... 필자가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단순한 노스텔지어만은 아니다. 이미 관성의 수레바퀴 위에 올려진 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첫째 그 정책이 시작된 최초의 의도와, 둘째 그 의도가 만들어 놓은 예기치 않은 결과와, 마지막으로 이미 통제가 어려워진 정책의 매너리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교육콘텐츠 사업이 만들어낸 도착적(倒錯的) 결과와 매너리즘

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다. 2012년 말에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은평의 실험’이라는 기존과는 사뭇 다른 방식의 정책연구가 진행되었고, 2013년에는 사업에 대한 수정 보완이 느슨하게 진행된 반면, 2014년에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교육우선지구예, 그리고 이어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끌려다니느라 숨 쉴 틈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어찌 보면 지금 은평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민관학이 함께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은평은 분명 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물결이 만들게 될 지류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 때로는 예기치 않게 빠져나간 지류가 현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결합해 의도에 역행하는 도착적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만약,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통해 마을과 학교의 관계망과 무관한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절대 의도한 결과가 아니다. 즉, 교육콘텐츠 사업의 핵심은 마을과 학교의 관계망이 안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지, 오로지 교육콘텐츠 사업만을 위해 존재하는 소규모 비교과 사교육 업자의 양산과 그 이해관계의 확대에 있지는 않다.

²⁾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혁신학교’와 ‘마을학교’ 운동은 마을과 학교의 연계 협력보다는 독자 생존을 위한 모색이었다.

1) 마을과 학교의 관계 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콘텐츠의 연계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마을이 교육콘텐츠 사업을 이루는 최소 유닛으로 본다면 은평구도 꽤 넓은 공간이다. 진관동에 있는 교육콘텐츠가 수색동에 있는 학교와 연계하는 것은 교육콘텐츠 사업의 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2012년, 최초로 교육콘텐츠 사업을 구상할 시기에는 학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마을의 교육콘텐츠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심지어 은평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교육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승인을 해 주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자는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마을과 학교의 일차적인 관계를 높이는 것이라는 방향을 수차례 역설해 왔다.

은평의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서대문, 강북, 성북 등으로 벤치마킹되어 확산되고 있다. 한번은 성북구청의 요청으로 성북구의 교육콘텐츠 사업 참가자 대상으로 사례 발표를 하는데, 중간 쉬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은평에서 왔다고 인사했다. 필자는 쉬는 시간을 마치고 발표를 이어가면서 성북 교육콘텐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은평의 경험이 필요한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성북의 자원을 발굴해 학교와 연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필자의 발표를 들으셨던 은평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든 현장은 각기 다른 장점과 극복 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화와 미디어의 발전은 그 각기 다른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폭력적으로 일원화시켰고, 극복 가능한 단점을 무기력한 현실로 만들었다. 개인의 입장에서 교육은 성장의 계기를 제공한다. 동시에 교육은 산업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을 통해 성장한 개인을 선발해야 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듯, 성장과 선발의 균형은 근대교육의 시작과 함께 던져진 숙제이다. 일찍이 조선 시대부터 관료사회가 시작된 우리나라와 영국에서 독립해 그 역사가 짧은 미국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소위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지향하며 교육의 선발 기능을 더 중시해 왔다. 반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복지국가를 표방한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개인의 성장에 무게를 두는 교육을 하고 있는 듯하다.

교육의 목적이 산업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나와 다른 환경 속에 있는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결과가 경쟁에서 이기는 자와 패배한 자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주저 없이 그 길을 선택하겠지만, 과도한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 모두를 불행의 늪으로 내몰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

실 속에서, 이제는 경쟁을 통한 선발이 아닌 다른 목적의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잣대에 맞추려는 선발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마을과 학교가 만나 관계의 밀도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중심의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2) 매너리즘의 혁신, 플랫폼과 콘텐츠의 관계를 생각하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에서 송농 찾는다는 말이 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지 않으면 밥을 지을 수 없고, 송농도 만들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우물 앞에서 밥을 짓고 송농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물이 밥과 송농을 만들어내기 위해 물을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이고, 그 우물에서 퍼 올린 물로 쌀을 씻고, 밥을 지어 각기 다른 맛으로 만들어지는 송농이 다양한 콘텐츠라면, 탑다운 방식의 정책 추진에 익숙해진 우리는 우물에서 밥도 짓고, 송농도 만들어서 각자의 집에 나눠주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우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송농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거나 관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송농이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밥을 짓는 각자의 집에서 할 고민이다.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지향하는 교육정책 플랫폼이다. 마을과 학교의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그 필요성 또한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던 사업 초창기에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역할보다는 구체적인 콘텐츠 사례의 발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올해는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추진한 지 만 8년이 되는 해이다. 8년이라는 시간은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도 아니고 백 년 뒤를 생각해야 하는 교육정책이 자리를 잡아 시스템화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마을과 학교의 협력 필요성이 대중적으로 확장되는 외부 지형의 변화 또한 있었다. 바야흐로 은평의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지난 8년을 되돌아보며 매너리즘에 빠진 하향식 정책 관성을 혁신하고, 마을과 학교의 다양한 연계 협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교육콘텐츠연계사업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2012년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시작할 때, 몇 가지 원칙들을 세웠다. 첫째 공교육과의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을 위한 '비교과 원칙', 둘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한다는 '상생의 원칙', 마지막으로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학교가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제공한다는 세 가지 원칙이었다. 그리고 2015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2014년 교육콘텐츠연계사업 설명회

때, 필자는 세 번째 원칙인 ‘콘텐츠 경쟁력’ 보다 ‘마을과의 연계성’이 더 우선한다는 원칙의 수정이 있었다. 정책이 만들어 놓은 변화된 결과에 맞게 원칙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그 원칙이 또 다른 관성이 되어 정책의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도 매너리즘을 혁신하는 중요한 태도이다.

은평은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관학이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했고, 그 성장의 경험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은 혁신교육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민관학의 협력사례를 경험했다. 그 안에는 다양한 갈등 유형이 있고, 또 다양한 주도 유형이 있다. 은평의 민관학은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꾸준히 그 관계가 깊어져 왔고, 그 품이 넓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민관학 정책 당사자들을 넘어 마을과 학교 속에서 더 깊어지고, 은평구의 구석구석으로 그 정책의 넓이가 보다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략)

7.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누가 거버넌스를 원할까? 거버넌스는 누구에게 편익을 주고 있을까? 은평구청은 2017년 스트레스가 심한 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치유할 수 있도록 강북삼성병원에 마음건강 컨설팅을 의뢰했다. 강북삼성병원은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마음 건강 상태를 진단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진단 결과 직급별로는 8급이, 9급과 7급보다 스트레스 상태가 더 높았고, 직렬 별로는 예상과 다르게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복지직, 시설직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서별로는 과거와 큰 변동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민원으로 인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소위 격무 부서로 불리던 건설교통국이나 도시환경국은 예상과 달리 스트레스가 낮게 조사되었고,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는 협치문화국이 전통적 격무부서인 주민복지국보다 마음건강상태가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

06_마음건강현상 영역별 악화 수준

마음건강현상 영역별 악화 수준											
	직급별			직렬별			부서별				
	7급	8급	9급	행정	복지	시설	협치	주북	환경	교통	동주민
번아웃											
우울											
불안											
음주											
수면											

[직급별] 8급 > 9급 > 7급

[직렬별] 행정 > 복지 > 시설

[부서별] 협치문화국 > 주민복지국 > 동주민센터 > 도시환경국 > 건설교통국

▲ 은평구청 직원 마음건강컨설팅 결과 보고서 (2017. 9. 4)

그렇다면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민의 만족도는 어떨까? 정확히 계량해 보지는 않았으나 민도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관과 만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전 모구청의 요청으로 구정연구단 연구원 채용 심사를 갔던 적이 있다. 난 모든 응시자에게 같이 일하는 공무원과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모두가 한결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공무원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그 누구도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전제하는 사람은 없었다. 공무원은 반드시 틀렸고, 틀릴 수밖에 없고, 틀려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그에 비해 자신은 반드시 옳다는 오만을 가진 듯했다. 인간인 내가 감히 전지전능한 신을 심사하러 간 것일까? 과거의 나를 돌이켜 보면 나 또한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하자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민이, 하자투성이인 관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는가!

민과 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범람의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민도 관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거버넌스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일까? 성장의 과정에서 갈등은 당연한 것이니 민과 관 모두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단지 견뎌야 할까? 나는 거버넌스가 각 주체가 고통스러워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 당사자가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거버넌스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마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실은 고통스럽다.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마침내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아디다스 축구공을 만들고 있는 어린 노동자를 동정한다. 그 아이가 일 년 동안 열심히 월급을 모아도 자신이 만드는 축구공을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아이의 행복과 불행을 왜 지구 반대편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판단하는가! 그 아이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아디다스 축구공을 갖고 싶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주변에 아무도 그 비싼 공을 차고 노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이는 자신이 번 돈으로 동생에게 과자를 사 주며,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부모를 봉양하며 더없는 행복감을 느낄지 모른다. 이 지구상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가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 GDP와 반드시 연동되지는 않는다. 행복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기대가 높지 않다면 현실에 대한 불만도 높지 않을 수 있다. 영화 "조커"는 배트맨의 빌런, 조커의 탄생을 그린 영화다.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터지는 조커가 악당이 되는 과정을 단순화하면 한마디로 "기대의 배신"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코미디언이 되는 게 꿈이었던 아서는 시장 출마를 앞둔 토마스 웨인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자신이 고담시 최대의 갑부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현실과 갑부의 아들이라는 기대 사이의 간극이 증폭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진다. 단지 기대가 무너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서를 감당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끌어내린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토마스 웨인의 이야기를 듣고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니는 과대망상증 환자일 뿐만 아니라 친모도 아니었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해피한' 정신병도 과거 어머니의 학대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다. 비참한 현실과 소박한 기대 속에서 살아온 아서에서 고담시 최대 갑부의 아들이라는 기대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현실 사이의 간극은 지극히 평범한 정신병자 아서를 희대의 악당 조커로 폭주하게 만든다.

어느 때나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다. 중세이전엔 그 기준이 혈통이었고, 자본주의 시대엔 자본의 유무가 계급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정보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가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다. 계급사회인 동시에 관료사회였던 조선 시대, 최만리를 비롯한 사대부들이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에 반대했던 이유는 쉬운 한글을 통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어리석은 백성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네 놈도 모르는 것이냐? 개팔이와 연두가 단 이를 만에 글자를 익혔을 때,
네 놈은 어찌 그리 놀랬느냐?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칠 때, 어찌하여 천

자문을 먼저 떼게 하고, 그다음으로 소학과 명심보감까지 떼게 한 후 작문을 가르치느냐? 소양이 없는 자가 글을 써서 안 되기 때문이야. 글자는 무가니까.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글을 쓰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 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야. 글자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헌데, 이도가 만든 이 글자는 소양이 없는 자라도 단 이틀이면 배울 수 있다. 그래, 네 높은 개팔이와 연두를 보며 본능적으로 그 공포를 느꼈던 것이다. 이도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세상에 내 놓으려는 것이야. 헌데, 이 사대부라는 놈들은 어찌 그것을 모른단 말이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중 정기준의 대사)

은 나무" 중 정기준의 대사)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나오는 정기준의 대사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에서도 언급했듯 글자, 나아가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이다. 다른 하나는 쉬워도 너무 쉬운 한글로 인해 파생된 역설적 결과이다. 정기준의 말대로 한 글은 특별한 지적 능력을 가지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읽는 행위와 이해하는 행위를 분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거버넌스라는 말은 민도 관도, 진보도 보수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도 읽고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을까? 모두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기대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간극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버넌스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사회적 고통은 행동과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의 격차가 커질 때 발생한다. 행한 바가 실제 사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재화와 행운이 부당하게 분배되면 세상은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말하자면, 기대에 현실이 미치지 못하여 그 '간극'이 커질 때 문제가 생긴다. 간극에서 비롯한 불공정, 불만족, 부정의, 불평등은 고통을 참아내기 힘들게 만든다(전상진, 2014: 20).

우리 시대엔 다양한 격차, 즉 간극이 존재한다.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팽창하는 속도에 비례해 광속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원인은 그 절대적 풍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교육문제가 우리 사회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근대교육의 주목적이 성장이 아닌 선발이 되면서 교육에 대한 (선발)기대와 교육이 만들어 낸 (선발)결과에 대한 간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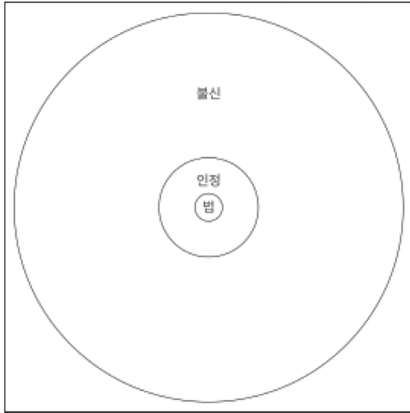
문이다. 나는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하는 궁극의 목표는 각자 자신의 확대, 재생산에만 몰입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체계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입장의 간극, 그리고 신념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간극은 바로 거버넌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민과 관이 서로를 바로보고 있는 인식의 차이다.

8. 상식의 종말과 시민의 성장

모두가 상식을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상식이 다르고, 민과 관의 상식이 다르고, 마을과 학교의 상식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일상 속에서 경험한다. 그리고 상식을 주장하는 강도와 빈도를 통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인 상식이 이미 사라졌음을 깨닫는다. 상식이 사라진 시대, 상식을 주장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략 두 가지다. 첫째, 더이상 상식을 주장하지 않거나, 둘째, 상식을 포기한 채 모든 것을 "상식의 제도적 강제 장치"인 법에 의존하는 것이다.

민과 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인식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상식이 그저 자신의 상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집단, 심지어 국가라고 하더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때 '짐이 곧 국가'라고 얘기했던 절대군주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개인이 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직접민주주의의 시대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개인은 한 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대략 오천만 명이 넘는다. 상식이라는 것이 사람 수만큼 존재하고 있고, 각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신념을 바탕으로 소위 상식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 생존에 있는 유일한 상식은 그나마 법뿐이다. 법의 영역을 인정이라는 영역이 얇게 둘러싸고 있고, 그 밖은 모두 나와 다른 것을 믿지 않는 불신의 영역이다. 불신의 영역은 밖으로 팽창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인정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압박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민의 성장'이다. 쉬운 한글의 역설로 '시민'의 '성장'에 대한 개념의 오해를 막기 위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민'과 '성장'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 먼저, 누가 시민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들을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이야기한다. 나 또한 학생들이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존엄한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상식(법)과 인정, 그리고 불신의 영역

면 공무원은 시민일까, 아닐까? 공무원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엿한 시민이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시민인 것처럼, 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시민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슷하게 개념을 확장해 보면, 교사는 가르치는 시민이고,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선발되기만을 바라는 시민은 아닐까?

다음은 내가 생각하는 성장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다. 흔히 성장을 키(신장)로 생각한다면 키가 계속 크는 것을 성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키가 큰 사람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발할 때만 의미가 있다. 10명의 아이가 무거운 나무

를 함께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개인에 국한해서 보면 키가 크는 것이 성장일지도 모르겠지만, 집단인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나무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키의 차이(간극)를 줄이는 것을 성장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이 시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회문제가 간극에서 비롯한 불공정, 불만족, 부정의, 불평등이라면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 즉, 누군가 혼자 앞서나가 사회적 간극이 확대된다면, 앞서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성장의 한 방법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설명한 '시민'과 '성장'이라는 개념을 결합해 '시민의 성장'은 시민의 다양성이 인정받고, 존중되는 것이고, 다양성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고, 다양성이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의 세 가지가 매우 필요하다.

- 첫째, 주장하지 않고 성찰하는 시민
- 둘째, 요구하지 않고 참여하는 시민
- 셋째, 남 탓하지 않고 책임지는 시민

9.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³⁾

거버넌스는 시장에 주도권을 맡겼던 시장의 실패와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려고 했던 국가 정책의 실패로 인해 시작되었다. 도덕적 통제가 불가능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온갖 제도로 발목이 잡혀있는 국가 기관의 장점이 만나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이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갈등이다. 거버넌스란 주도를 배제한 다양한 주체의 수평적 연대와 협력이며, 갈등의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거버넌스를 위한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거버넌스에서 주도를 걷어내야 한다.

교육 거버넌스 갈등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았지만, 주도와 관련된 내용은 찾지 못하였다. 이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나의 한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거버넌스는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누가 주도하느냐'에 더 목직한 방점이 찍혀 있다. 과정 위에 놓여있는 교육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거버넌스에서 '주도'라는 개념을 걷어내는 것이다.

나아가 교육 거버넌스에는 주제가 '교육'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거버넌스의 주체인 민과 관 외에 역할인 학이 주체로 결합했다. 교육 거버넌스는 학이 참여해야 하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오히려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학을 구해내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만약 학이 교육 거버넌스를 주도한다면, 교육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민과 관도 학이 빠져 있는 수렁으로 빨려 들어갈지 모른다.

두 번째, 상수가 아닌 변수를 조작해야 한다.

민과 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수'가 있다. 상수는 각 주체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며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민의 상수가 '가치'라면, 관이 가지고 있는 상수는 '제도'일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상수를 둘러싸고 있는 변수가 있다. 민은 가치를 둘러싸고 있는 '자존감', 관은 제도의 '해석'이 상수를 둘러싸고 있는 변수이다. 각각의 변수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상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시대적 과제인 가치를 망각한 자존감은 오히려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만약 관이 오로지 자신의 편익을 위해 제도를 해석한다면 시민들에게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거버넌스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수를 둘러싸고 있는 변수와

3) 7장의 내용은 필자의 논문,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의 5장 결론에서 가지고 왔다.

변수가 만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이 경험이 되어, 축적되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변화가 불가능해 보였던 각자의 상수도 비로소 애초에 그 상수가 시작되었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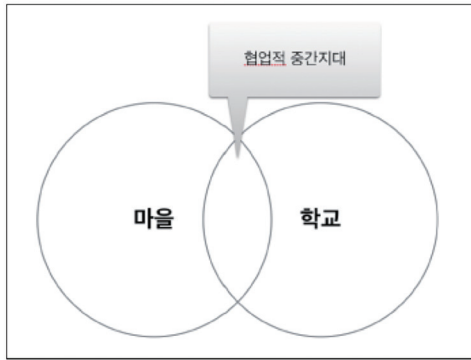
세 번째, 현재가 아닌 미래를 합의해야 한다.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땐, 질문을 바꿔보라는 말이 있다. 만약 질문을 바꾸어도 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답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있을지 모른다. 미래의 답은 현실의 '합의'된 상상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작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비록 합의할 수 없더라도 상대방이 처한 현실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합의'의 필요조건인 '인정'과, '인정'의 충분조건인 '합의'가 만나야 거버넌스의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가 거버넌스를 하는 이유는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거버넌스는 구조화된 사회문제(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제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주체), 각 주체들이 서로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수평적으로 협력하여(작동 방식) 사회문제가 해결 된 미래를 상상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거버넌스란,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문제해결 방식"이기 때문이다.

10. 마을과 학교의 협업적 중간지대에 대한 제언

구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본 사람이라면 공무원이 서로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다른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는 소위 '핑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은평구청 비서실에서 근무해 본 경험으로 말을 하자면, 오롯이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닐 경우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한 밖에 일에 관여를 하는 것은 월권이고, 만약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었다면 그 공무원은 반드시 감사의 대상이 된다. 답답한 민원인의 입장에서야 속이 터질 일이지만 그렇다고 만약 공무원의 월권을 조금씩 허용한다면 우리는 더 큰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여러 부서가 협력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또한 쉽지는 않다.

마을과 학교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16년 8월 22일 한겨레신문에 “서울 ‘방과후학교’ 지자체가 맡는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정규교과 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로 인해 다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 마을로 그 업무를 이관하고 싶은 절박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과후’학교’가 오롯이 마을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지자체가 방과후를 책임져야 하는



논리로 선진국의 사례를 끌어와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는 교육의 권한 또한 자치구가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끌어와 주장하는 것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의 한 형태이다. 교육도, 돌봄도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다. 역할을 기계적으로 분화시켜 특정한 전문성에 오롯이 권한과 책

임을 전가하는 것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마을과 학교의 협력 지원을 필수과제로 제시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통해 마을과 학교는 이미 만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거나 서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가 마을로 향하는 ‘마을결합형학교’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마을이 학교로 향하는 ‘마을과 학교의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은 마을과 학교의 협력이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가져 왔고 그 결과 마을과 학교 사이에 새로운 접점과 교집합이 확보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이 낳은 분업화와 전문화는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많은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켰고, 분업화와 전문화된 영역의 이해 관계가 확장되어 다른 영역과 충돌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책임의 회피와 전가로 이어지고 있다. 분업화와 전문화가 효율적인 생산의 확대를 위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는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마을이 해야 할 역할이 학교로 떠넘겨져 학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애초에 교육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낳은 예기치 않은 결과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을 또한 개개인의 경쟁적 생존을 위해 공동체를 버린 결과가 교육문제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구조적 문제가 되었다. 방과후학교, 돌봄, 교육복지 등 마을과 학교가 서로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오롯이 자신의 전문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은 당분간 마을과 학교의 접점 지역인 ‘협업적 중간지대’에 놓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2016년부터 주장해왔던 이러한 실험을 시흥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실행하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국

가교육회의를 설치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중앙정부단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2011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의 정책 방향으로 협업적 중간지대에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민간이 협업적 중간지대에 ‘지역교육위원회(가칭)’을 설치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시대, 교육의 문제는 국가단위에서 풀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최선과 또 다른 누군가의 최선의 충돌은 최선이 아닌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서로 다른 누군가의 최선과 최선의 충돌이 낳은 악순환의 결과이다. 교육콘텐츠연계사업의 시작은 누군가의 반대와 또 누군가의 우려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최선을 조금씩 양보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이끌어냈다. 새로운 교육의 비전은 강력한 최선으로 통합된 결과가 아니라 부실한 차선과 또 다른 부실한 차선이 만나야 비로소 작은 싹을 틔울 수 있을지 모른다.

참고 문헌

- 김수행. 2014. 『자본론 공부』. 돌베개. (ebook)
- 김정성. 2014. "스웨덴식 노사문화의 출발점, 살트세바덴 협약."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6/17). <http://bitly.kr/qoxs> (검색일: 2018/5/2)
- 라미경. 2009.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91-107.
- 염재호·김영대·권효진. 2007.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역할/재정역할 재정립." 『한국정치학회』, 5
- 이 철. 2015. "끊임없이 확장하는 소통의 의미장... 루만의 '교육소통'이란?". 『교수신문』 (12/23). <http://bitly.kr/54b0> (검색일: 2018/5/1)
- 이현지·오승환·장철훈. 2017. "진단검사의학의 기원과 역사." 『Lab Med Online』 Vol. 7, No. 2: 53-58.
- 전상진. 2014. 『음모론의 시대』. 제1판 제2쇄. 문학과지성사.
- 전상진·김무경. 2010. "사회학의 위기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사회와이론』17.
- 최대현. 2017. "서울교육감, '교육적폐' 교육국제화특구 강행." 『교육희망』 (11/16). <http://bitly.kr/hcz7> (검색일: 2018/6/15)
- 최보희. 2015.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연구-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 강북삼성병원. 2017. "은평구청 직원 마음건강 컨설팅 결과 보고서".
- 루만, 니클라스(Luhmann, Niklas). 2015. 『사회의 교육체계』. 이철 역. 이론출판.
- 에드워드, 마이클(Edwards, Michael). 2005. 『시민사회: 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 서유경 역. 동아시아.
- Pierre, Jon. & Peters, B. Guy. (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은평, 마을하다

발행일	2019.12.31
발행처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발행인	이미경
기획·편집	유재원
주소	(03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50 은평마을속학교 (진관동, 롯데몰 은평점 앞 승객대기동 1)
전화	02-351-3099
홈페이지	https://epafterschool.com
이메일	epsmiletown2@daum.net
디자인·인쇄	권순미디어

* 이 책자는 2019 은평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